성도의벗 4

1975

성도의 벗

월간

순 서

1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보이드 케이 패커

5 금식의 법 스터얼링 더블류 실

7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는 신전 로저 메릴과 리베카 메릴

12 경전은 점성술, 복술,
영매, 마술, 요술, 강신술을
어떻게 보나? 로버트 제이 매튜스

15 이 세상의 끝까지

18 총관리 역원의 이야기 :
아들에게 주는 충고 에스 딜워스 영

20 요나 존 에이 트베트네스

21 성신의 은사

22 혀는 마음의 붓이다 도로시 리언

24 마크의 조개 껍질 캐로린 그록크너

27 피지에서 있었던 이야기

28 심심풀이

29 음덕을 행하라 리차드에이치 크래크로프트

30 금식의 법 헨리 디 테일러

32 선교 사업을 위한 준비 에이 데오도르 터틀

34 우리의 귀한 가족 로렌 시 던

37 믿음의 싸움에 용감하라 브르스 알 맥콩키

40 왜 지금 할 수 없읍니까? 닐 에이 맥스웰

43 하나님을 알라 하워드 더블류 헌터

46 스테이크 부장단 메시지 김 창선

47 내외소식

제11권 제4호 1975년 4월호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볼
엔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휴 비 브라운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일 1975년 4월 1일
매월 1일 발행
통권 117호
발행인겸 편집인 : 엘 에드워드 브라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 74 — 6832
발행소 :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 서울 514091
인쇄인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유 건수

정가
1 권 150원
1 년분(송료포함) 국내 1,200원
일본, 홍콩, 마카오, 중국 7 불
필리핀, 월남, 라오스, 태국 9 불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 14불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중근동아시아 18불
선박 3 불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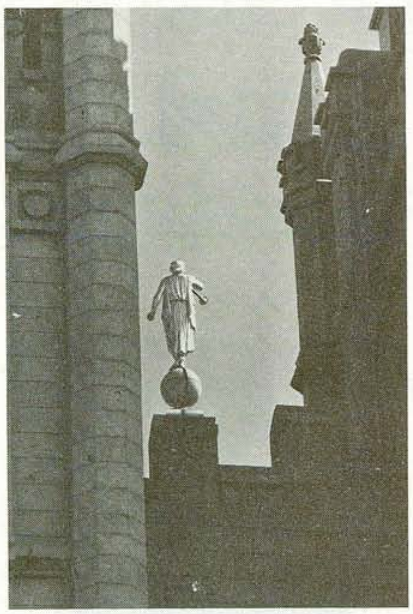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음을 돌이킨 자들의 생활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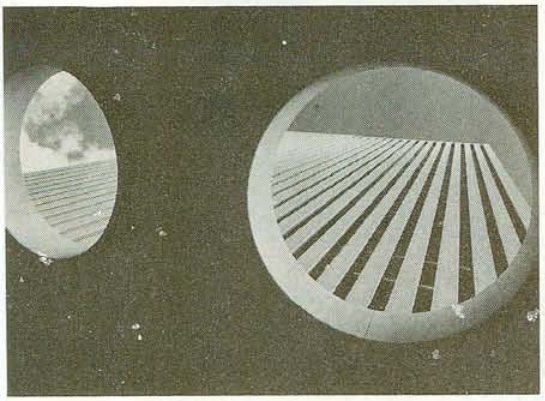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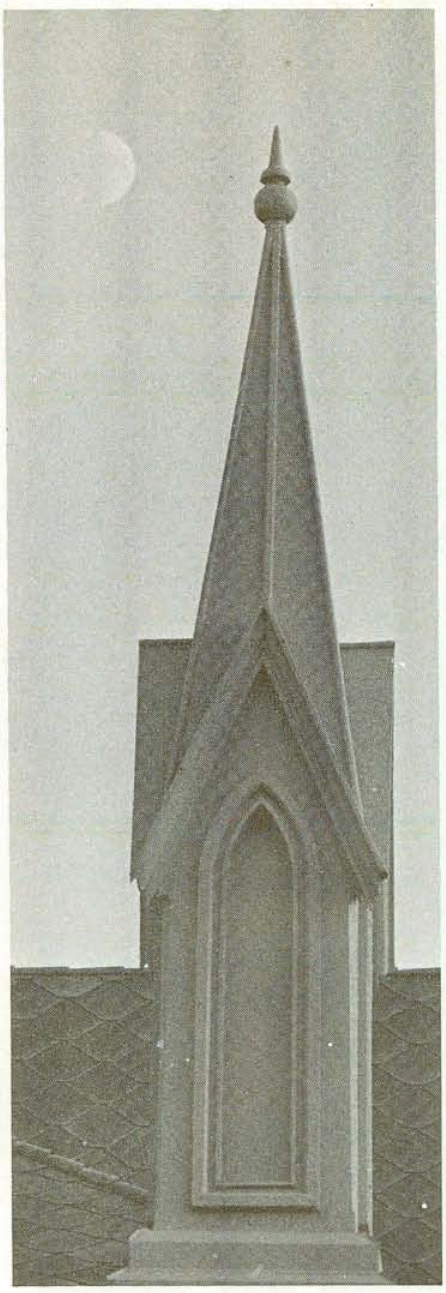
오늘 저는 아직 교회 회원이 되지 않으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울러, 이미 교회 회원이 되신 분들에게는 복음을 나누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석주 전, 뉴욕에서 유럽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항공사의 여사무원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로 왔습니다.

"제 조카 둘이 선생님 교회에 나가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애들의 생활의 변화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잠시 대화를 나누는 중에 나는 그녀의 언니가 아들들의 교회에 다니는 것을







메시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물었읍니다.

"좋아하다 뿐이겠어요?"라고 그녀는 말하면서 청소년에 대하여 가족이 몹시 염려하였다고 설명하였읍니다. 그 두 소년은 배니 부대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방랑자와 같은 젊은이였읍니다. "그 애들이 번한 걸 보시면 믿지 못하실 거예요. 그 길던 머리도 단정하게 자르고, 모든 성품까지도 다 변화되었어요"라고 그녀는 말했읍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 자리를 떠날 때 그녀는 내게 다시 감사하면서, "어떻게 그리 하시는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했읍니다.

그 여사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행동의 최고 표준으로 고수하고 있는 것 한 가지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복음의 원리는 확고부동합니다. 때때로 프로그램과 방법에 변경이 있기도 합니다만 근본적인 표준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읍니다. 여기에는 안전성이 있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구미에 맞게 복음의 원리를 변경할 수는 없읍니다. 표준을 세운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직 교회의 회원이 안되신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을 지나칠 정도로 여러분께 나누고자 한다고 생각되더라도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를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나누는 것은 복음을 간직하기 위한 하나의 필요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선교 사업은 기회가 있을 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18,000명의 선교사 중에서 21세 이상이 5퍼센트를 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실은 선교 사업이 젊은이에 대하여 갖고 있는 강한 요구와 사업의 강한 힘을 설명하여 줍니다. 선교 사업은 청년에게 중요한 청년기의 2년을 희생하고 청년기의 활동을 희생하여 자비로 복음을 가르치겠다는 강한 신념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성공한다는 것은 전혀 놀랄 만한 것이 못되니, 이는 그들의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은 "유일하고 참된 살아있는 교회"(교성 1 : 30)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합니다만 이 교회는 입교하기 쉬운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생활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변화가 물론 그 사람의 생활에 향상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마는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에 가입하느냐 안하느냐가 큰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가입하려면 지금까지의 모든 부도덕한 행실을 버려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충실할 것을 맹세해야 하고 아내 역시 남편에게 충실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성스런 생식 능력을 결혼때까지 자제해야 합니다.

책임감 있는 가족을 이루게 하는 것이 교회의 최대의 이상입니다.

절제가 요구됩니다. 교회 회원은 각종의 알코홀 음료를 어느 때나를 막론하고 금하여야 합니다. 담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외에 습관성 음료인 홍차나 커피도 삼가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물론

아편에 대한 교회의 입장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향상시켜야 할 사항들이 또한 많이 있읍니다. 겸손, 정직, 경건, 안식일 준수 등 우리 각자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요소입니다.

선교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데도,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한 자격을 갖추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단 교회에 가입한 다음에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쉬운 교회를 찾고 있다면, 또 그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면 그것은 참된 생각이 아닙니다.

몇 년 전 저는 한 선교부를 관리한 적이 있었읍니다. 선교사 두 명이 훌륭한 가족에게 복음을 가르쳤읍니다. 그 가족은 침례받고 싶다고 말했읍니다만 갑자기 그들의 열의가 쓰러졌읍니다. 아버지되는 사람이 십일조에 대해 배우고는 그 이후의 모임을 모두 거부하는 것이었읍니다.

이 두 선교사는 이 사실을 지부장님에게 보고했었읍니다. 이 지부장은 역시 최근에 개종한 회원이었읍니다.

며칠 후 지부장은 두 선교사에게 함께 그 가정을 방문하자고 권유했읍니다.

"교회에 입교하지 않으시겠다고 결정하셨다구요" 지부장은 가장에게 말했읍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교사의 말로는 십일조 문제로 그리 되셨다더군요."

"네" 가장이 대답했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했읍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웠을 때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군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읍니다'라고 말했읍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해서 교회에 입교하지 않기로 작정했읍니다."

"선교사님들이 금식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던가요?" 지부장이 물었읍니다.

"아뇨, 그게 뭡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매달 두끼를 금식하고 그에 해당되는 금액을 모아 가난한 사람을 돕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안해 주었는데요"라고 그가 말했읍니다.

"그러면 건축 기금에 대해서는 말하던가요?"

"아뇨, 그건 또 뭡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모든 회원이 예배당을 짓는 데 기여합니다. 형제님께서 교회에 가입하신다면 노동으로나 돈으로 이 일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우연히도 저희는 지금 교회를 짓고 있읍니다."

"왜 선교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안했는지 모르겠군요."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던가요?"

"아뇨, 그건 뭔데요?"

"저희 회원은 서로 돕고자 합니다. 회원 중에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병이 들었거나, 실직했거나, 곤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은 함께 그를 돕습니다. 형제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요.

"직접적인 성직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하던가요? 회원 모두는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수단 등 모든 것을 바치면서 일을 합니다. 일에 대한 보수를 전혀 받지 않고 말입니다."

"선교사님들은 제게 그런 말씀을 전혀 안해 주셨읍니다." 가장이 말했읍니다.

"십일조와 같은 작은 일로 교회 입교를 그만 두셨다면 분명히 형제님은 교회에 들어 올 준비가 아직 안됐읍니다. 교회에 입교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잘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떠날 때, 지부장은 잠시 돌아서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형제님, 왜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기꺼이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읍니까? 저는 십일조 청구서를 받아 온 적이 한 번도 없읍니다. 아무도 십일조 집수원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없읍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십일조를 냅니다. 모두 다 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큰 축복으로 여깁니다.

"형제님이 그 이유를 발견하신다면, 형제님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값진 진주(마 13 : 45 참조)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상인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얻으려 한 진주 말입니다.

"그러나 형제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직 형제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기만을 빌 뿐입니다." 며칠 후 그 가장이 지부장 댁에 나타났읍니다. 선교사와의 모임을 약속하려는 것이 아니었읍니다. 그것은 필요가 없읍니다. 그는 가족의 침례일을 약속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가족은 열심히 기도했었읍니다.

이러한 일은 높은 표준에 감화를 받는 개인과 가족에게 매일 일어나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을 지니고 있읍니다. 누가 무어라 해도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모두 다 지키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높은 표준이 우리에게 끼치는 단 하나의 불편은 급속도로 계속되는 교회의 발전에 있읍니다. 교회가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는 끊임없이 소규모의 효율적인 교회 단위를 조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표준에 따라 생활하지 못하는 회원들도 (이러한 회원이 있읍니다.) 그러한 표준을 일반적으로 옹호합니다. 새로운 회원뿐만 아니라 옛 회원들도 우정을 나누고 훈련을 받아서, 교회에 들어 감과 동시에 세상의 표준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마태복음 13 : 45-46)

여러분 중에 혹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금까지의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실제 이상으로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을 우려하여 아스토 여사*의 말씀을 인용해야겠읍니다.

그녀는 늙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읍니다. 드디어 노령에 이르렀을 때 여사는 철학적으로 이같이 말했읍니다. "저는 늙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읍니다. 왜냐하면 늙어서는 하고 싶은 일을 다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처럼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더군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하고 싶지도 않게 되기 때문이지요!"

비회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억지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에는 여러분에게나 우리에게나 모두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읍니다. 복음은 이를 거절하는

자에게나 이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나 모두 참된 것입니다. 전자나 후자나 모두 복음에 따라 심판받게 됩니다.

복음을 나누어야 하는 회원의 의무를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교회 역사의 한 토막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읍니다.

1850년대 말, 유럽의 많은 개종자들이 대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고생을 감수하면서 몰려 오고 있었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여 구개 마차나 포장 마차를 사지 못하고 보잘 것없는 소지물을 손수레에 싣고 밀면서 걸어야 했읍니다. 교회사의 가장 비극적이며 감동적인 순간은 이 손수레 개척자들이 겪었던 경험에서도 몇 가지를 찾을 수 있읍니다.

백아더 형제가 이끄는 대에서 일어난 일이었읍니다. 이 대에 함께 있었던 영국인 개종자, 아처 워터스 형제는 1856년 7월 2일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읍니다.

"파커 형제의 6살 된 아들이 없어졌다. 파커 형제는 아들을 찾느라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 갔다"(르로이 알 헤이픈과 앤 더블류 헤이픈 공저, 시온으로 향한 손수레, 파이오니어판, 클렌데릴, 캘리포니아, 아서 에이치 클라크사, 1960년 2페이지)

잃어 버린 아들, 아서는 로버트 파커와 그의 아내 앤 파커의 4아이중 끝에서 두번째 아이였읍니다. 갑작스런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람에 예정보다 사흘 앞두고 급히 야영을 했었읍니다. 아이가 없어진 때가 바로 이때였읍니다. 부모는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길가에서 놀고 있으려니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읍니다.

누군가가 그날 아침 행렬을 멈췄을 때 어린 소년이 수풀 그늘에서 쉬고 있던 것을 기억하였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모두 어린 아이를 갖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6세 된 어린 소년이 여름의 햇빛 아래서 쉬 잠이 들고, 또 깊이 잠이 들어 진영이 이동하는 소리에도 깨지 못하고 그대로 잠들어 있었을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틀 동안 대가 남아서, 모든 남자를 동원하여 소년을 찾았읍니다. 7월 2일, 하는 수 없이 대대는 서부로 행군하였읍니다.

일기에 기록된 바와 같이 로버트 파커는 혼자 아들을 다시 한 번 찾으려고 온 길을 되돌아 갔읍니다. 길을 떠나는 로버트에게 아내는 이렇게 말하면서 붉은 숄을 그의 어깨에 걸쳐 주었읍니다.

"아이가 죽어 있거들랑 이 숄에 싸서 묻어 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살아 있으면 이 숄을 신호기로 사용하세요."

아내는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손수레를 끌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났읍니다.

여행을 하면서 앤은 매일 밤마다 지켜보았읍니다. 7월 5일 해가 질 무렵 그들이 지켜 보고 있을 때, 그들은 동쪽에서 다가 오는 듯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읍니다. 지는 해의 빛을 받아 밝게 빛나는 붉은 색깔의 숄이 반짝이는 것을 앤은 볼 수 있었읍니다.

어떤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읍니다. "앤 파커는 모래 더미 위에 그대로 주저 앉았다. 6일만에 처음으로 앤은 잠을 잤다"

7월 5일자, 윌터스 형제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읍니다.

"파커 형제가 잃었던 아들을 데리고 캠프로 돌아왔다. 캠프에 있던 사람들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컸다. 그 어머니의 기쁨은 나의 필력으로는 도저히 묘사할 수 없다" (르로이 알 헤이픈과 앤 더블류 헤이픈, 시온으로 향한 손수레, 61페이지)

우리는 자세한 내용을 잘 알 수 없었읍니다. 어떤 이름모를 나뭇군이 -나는 지금도 어떻게 그곳에 나뭇군이 있었을까 하고 의심스럽기까지 할 때가 있읍니다-이 어린 소년을 발견하여, 병과 공포로 지친 소년을 아버지가 찾았을 때까지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그 당시에는 비일비재하게 많았읍니다. 만일 여러분이 앤 파커라면 여러분의 어린 아들을 살려 준 이 이름모를 나뭇군에게 대하여 어떻게 느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드릴 감사에 끝이 있을까요?

이와 같은 감사의 느낌은 우리가 그의 자녀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때 아버지께서 느끼시는 감사의 정입니다. 이와 같은 감사가 곧 보상입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만일 너희가 온 생애 동안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단 한사람이라도 내게로 이끌어 오면 저와 더불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맛볼 너희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교성 18 : 15) 그러할진대, 그것이 우리 자신의 영혼이라면 그 기쁨이 어떠하겠읍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나오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얻기 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표준을 버리고 교회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할 수 있으면 가족과 함께 나오시고, 할 수 없는 경우에 혼자서 나오십시오.

아버지께서 지니신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읍니다. 그러나 대가없이 지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것이요"(눅 12 : 48)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을 인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 아마 거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도 있읍니다. 계명을 지키며 생활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의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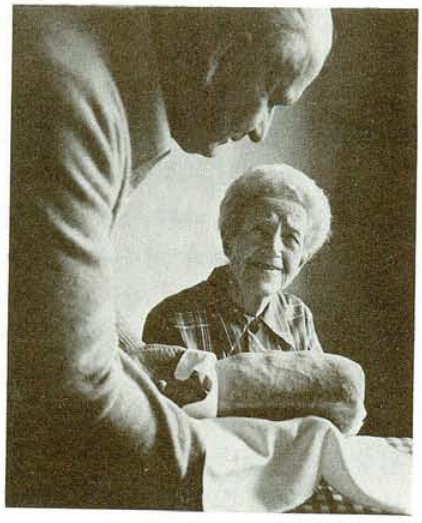
여러분 중에는 슬픔과 걱정과 죄의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행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독과 실망과 낙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중에는 가정의 파탄, 결혼 생활의 불화 실연 등으로 피로와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으로 피로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극복될 수 있읍니다. 신분이나 인종이나 직업을 막론하고 우리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우정의 손길을 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높이 들리우게 할 수 있읍니다.

나는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간증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십니다. 세상에는 그가 단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아버지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심을 압니다. 나는 그가 살과 뼈의 몸을 지니신 분임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금식의 법

스터얼링 더블류 실 장로
십이사도 보조



교회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문의 하나는 우리가 개개인을 격려하여 성공과 행복을 약속해 주는 중요한 계명을 지켜 생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면, 저는 교회 안팎의 세계 모든 사람에게 금식의 법을 지키도록 설득하고 싶습니다.

"건전한 원리에 입각하여 생활하는 것보다 더 인생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은 없다."고 헨리 시 렁크 박사는 말했읍니다. 모든 원리 중에 가장 건전한 원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에 따라 생활한다면 우리는 보다 훌륭한 인간이 될 것이며,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풍족해질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위대한 영원한 법을 사소하게 생각하고 그리 중요치 않게 여깁니다. 저는 왜 우리가 금식의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가에 대하여 여섯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싶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이때로부터 기도와 금식을 계속할지어다.

교리와 성약 88 : 76

첫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순종하고, 다른 이유보다도 그것이 옳고 하나님이 하라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때, 우리의 생활은 놀랄 정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어떤 현명한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을 단지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에 동의한다고 말하였읍니다.

두 번째 이유 : 교회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매달 첫째 주 일요일을 금식일로 지키도록 되어 있읍니다. 우리는 두 끼를 금식하여 이에 상당한 금액을 감독에게 내어, 음식, 의복, 의료품 등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기도의 집에 가서 간증을 하고, 감사를 드리며, 서로 격려하고 고무합니다.

현 교회의 모든 회원이 합당하게 금식 헌금을 낸다면 1년 총액은 5천만불에 달하게 될 것이며, 이것으로 상당수의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더우기 우리는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위기의 사태를 대비하여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읍니다. 사실 현재의 생활 수준에서도 우리는 매해 금식 헌금에서 필요한 액수를 지불하고도 매해 수백만불이 남고 있읍니다. 우리가 의무를 다한다 하더라도 그 액수는 매우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적은 돈이 모여 거액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 금식 기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혹은 성도라 불리울 수 있는 자로서 연약한 자와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연약한 자의 능력에도 감당해 낼 수 있는"(교성 89 : 3)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축복을 생각해 볼 때, 끼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낸다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읍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까지도 당황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헌금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곧 실질적인 금식의 단계를 밟을 뿐 아니라 정당한 기준으로 헌금액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교회의 회원들은 보다 풍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째 이유 : 금식은 자기 훈련과 극기를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오늘날 재현되는 유혹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며, 우리로 하여금 일상생활의 많은 죄 앞에 굴복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극기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극기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현대의 가장 위대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 모한다스 케이 간디가 순위에 올랐읍니다. 그는 인도를 영국으로부터 독

립시킨 인도의 애국자였읍니다. 그는 임종시에 인도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서 더 나아가서 세계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인정받았읍니다. 그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을 지닌 마하트마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읍니다. 그러나 그의 전기 작가인 루이스 휘셔는 간디가 어렸을 때 매우 극기와 자제력이 없는 소년이었다고 말합니다. 간디는 자기 자신을 겁장이로 생각했읍니다. 그는 암흑을 무서워했고, 뱀을 무서워했으며, 사람을 무서워했고, 자기 자신까지도 두려워했읍니다. 게다가 그는 아주 좋지 않은 성격의 소유자로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많이 지니고 있었읍니다.

이와 같은 성격이 그에게 결코 이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고의로 자기 자신을 다시 개조하기로 결심했읍니다. 그는 후에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개조한 인간'이라고 불렀읍니다.

간디는 단련하기 위하여 여러 날 동안 단식을 계속했읍니다. 음식에 대한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서야 어찌 인생의 더 어려운 일을 해결해 나가겠는가 하는 것이 단식하는 이유였읍니다. "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라고 그는 말했읍니다. 소크라테스 이후로 간디옹처럼 절대적인 평정과 극기로 자신을 분석하였던 사람이 없었다고 휘셔씨는 말했읍니다.

네 번째 이유 : 금식은 위대한 영적인 힘을 발전시키는 수단입니다. 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젊은이를 가리키면서 사도가 주께 악마의 영을 왜 내쫓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읍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마 17 : 21) 우리가 기도와 금식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악령을 쫓을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의 악령도 쫓을 수 있읍니다.

다섯째 이유 : 우리는 가장 가치있는 사랑을 행동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 6 : 21)

농부는 다음 해에 뿌릴 종자로 가장 좋은 곡식의 종자를 저장해 둡니다. 어떤 사람은 저장해 놓지는 않고 자꾸 꺼내 쓰기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행 20 : 35)고 말씀하셨읍니다. 우리가 꺼내 쓰기 보다는 지역 사회에 다시 돌려 준다면 보다 행복하게 되고 생활에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금식이 가장 훌륭한 사랑의 행위 중의 하나가 되는 이유를 4가지를 들어 말씀드리겠읍니다.

1. 우리가 내는 헌금은 모두 의도했던 곳으로 가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금식 헌금에는 경상비가 없읍니다. 훌륭한 자선 행위 중에는 상당히 많은 경상비를 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금식 헌금에서는 어떠한 경상비도 제하지 않습니다.

2.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모든 헌금은 모두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그러나 금식 헌금은 식품 청구서에서 나가는 것이며 다시 갚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3. 금식을 함으로써 우리의 수명이 연장되고 더 건강을 누리게 되며, 행복한 생활을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4.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라기의 입을 통해서 그의 태도를 보이셨읍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는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말 3 : 8-9) 그 당시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방법을 바꿈으로써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읍니다.

우리 생활에 질서를 주는 원리에 대하여 강한 신념을 가질 때 성공과 행복이 따르며, 이와 동시에 그 원리는 우리를 크게 유익하게 해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올바르게 격려하고 지도함으로써 모든 와드, 스테이크, 지부, 선교부, 개개인은 주님의 이 중요한 율법을 훌륭히 성취하여 성공하게 됩니다.

이 금식의 법은 "몽학 선생(갈 3 : 24 참조)이라 할 수도 있읍니다. 이를 잘 실천한다면 우리는 중요한 율법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얻게 되는 힘과 신앙으로 인하여 더욱 충실하게 다른 율법도 지키게 될 것입니다.

부모란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는 신전

로저 메릴과 리베카 메릴 글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이룩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가정의 본보기를 보았읍니다. 신전은 늘 편안한 곳입니다."

지난해 목표로 신전에 좀 더 자주 가겠다는 것을 설정하였을 때,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다.

학교에 들어 가지 않은 세 아이들과 몇 달 후에 태어날 아기의 부모인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자녀를 길러야 한다는 것에 크게 중점을 두게 되었다. 우리는 일단 목적과 목표가 뚜렷해지면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화평한 가운데 일한다. 그러나 자녀 양육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는 좌절감을 느꼈다. 자녀 성장에 관한 강의, 심리학 도서, 지도력과 관리 기술 연구 등은 모두 가정 생활의 문제점에 대해 각기 다른 해결책을 제언하였다.

어린 요셉 스미스가 그랬듯이 우리도 제각기 자신의 자녀 양육법이 옳다고 주장하는 인간들의 수많은 논리가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것을 채택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

였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이 옳은가?"를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기 시작하였다.

죽은 자를 위하여 자주 신전을 방문하면서 우리는 그곳에서 교훈과 모범으로 배운 원리가 우리의 생활에도 많이 적용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이룩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가정의 본보기를 보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범에서 우리가 바라는 완전한 부모상을 보았으며, 경전에서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위하여 역사하신 실제의 이야기와 모범으로 가득 찬 완전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요셉 스미스에게 계시로써 커틀랜드에 세워진 주님의 집과 모든 가정이 따라야 할 신성한 본보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셨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교성 88 : 119)을 지으라고 지시하셨다.

이 지시는 우리의 가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지시에 순종할 때 가정에는 "신전"의 분위기가 돌게 되며, 이 분위기는 가정을 좀더 지상의 천국으로 만들어 준다.

주님의 집은 늘 깨끗하고 편안한 곳이다. "하늘의 첫째 율법"인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관리의 표준으로, 이것은 화평의 분위기를 조성시켜 준다. 주부로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은 하인과 같은 일상적인 일보다 집안을 아름답고 밝게 가꾸고 유지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본질적으로 주부란 가족을 위한 신전의 여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께서 보여 주는 질서의 모범을 따라 주부는 가정 생활에 윤기와 영감을 더해 줄 수 있다.

주님의 집은 가르치는기능을 발휘하도록 마련되어 있다. 신전의 모양, 장식, 분위기, 프로그램은 모두 가르치는 기능에 도움이 되게 마련되어 있다. 각 방마다 편히 앉아 들을 수 있는 의자와 가르치기에 적당한 곳이 있으며, 시각 보조 자료로서 그림, 벽화 등이 벽에 걸려 있고, 때로는 필름까지도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은 모양이나 장식품에서 세상적인 표준을 보여 주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흔한가? 벽에 걸어 놓은 그림,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는 책, 가구 배치 등은 모두 우리의 가치 표준을 반영한다.

신전에는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 우리가 세상적인 일보다 주님의 일에 가치의 표준을 두고 있다면 우리 가정은 주님의 집의 본보기를 따르게 될 것이다. 거실에 자녀의 책, 흑판, 게시판, 융판, 꼭둑각시 무대, 시각 보조 자료 철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부모는 기꺼이 돕고, 가르치며, 또 부모 자신이 배운다면 학습의 분위기가 조성된다.

주님의 집은 그의 영이 임재한 곳이다. 신전에 들어 가려면 먼저 그가 신전에 가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집에 들어가기 전에 가족은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이 가정과 사랑하는 가족을 갖기에 합당한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주님의 집이든 우리의 집이든, 가정이란 가장 훌륭한 태도와 친절한 행동을 보이는 곳이라야 한다. 경솔한 말, 떠들썩한 웃음 소리, 씨름 논쟁, 다른 사람을 무시함 등이 없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데에 온갖 시간과 정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님의 집이든 우리의 집이든 가정이란 가장 훌륭한 태도와 친절한 행동을 보이는 곳이라야 합니다.

주님의 집은 성스러운 의식을 집행하는 곳이다. 가정의 밤을 관리하고, 가족 기도를 행하고, 병든 자녀를 축복하는 등 자녀를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양육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은 가족을 하나로 단합시키고 가족을 성결케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은 신권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다고 거듭 강조하셨다.

주님의 집은 그의 목적을 위하여 헌납된 곳이다. 가족이 함께 무릎을 꿇고 가정과 우리 자신을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데 헌납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경험은 우리가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더우기, 이와 같이 헌납함으로써 가족 각자는 가정을 보다 잘 알고 가정을 합당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열의를 갖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집은 우리의 가정이 따라야 할 본보기이다.

창조주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무

엇보다도 창조주가 듣고자 원하시는 명칭은 '아버지'이다. 지구가 창조되던 태초로부터 우리의 최종의 운명의 때까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려는 목표에 모든 것을 집중시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그는 부모의 귀감이 되는 것이다. 그는 완전한 분으로 결코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신다. 그는 그의 자녀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영원하고 참된 원리를 사용하신다. 다시 말해서 그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할 때처럼 우리에게 이로운 원리를 사용하신다.

그의 모범은 우리에게 자녀에게 무엇을 지도해야 한다는것을 알려 준다. 부모로서 갖게 되는 가장 난처한 경우의 하나가 바로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다. 자녀가 알아야 할 진리, 이야기, 계명, 율법, 개념 등이 너무 많이 있다. 어느 것을 먼저 가르쳐야 하는가? 그 답은 신전 의식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에 포함되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는 질서있는 절차에 따라 성약을 받아들인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이같이 가르치셨다. "신전 엔다우먼트가 있는데, 이것은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의 자녀 즉 모든 인간을 위하여 예비하신 의식으로, 인간의 영원한 여행과 무한한 가능성과 진보에 관한 의식입니다. 이러한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 신전이 건축됩니다"("신전의 목적" 엔사인, 1972년 1월 41페이지)

이 성약의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 모든 율법은 특정한 시간에 배우게 된다. 자녀들이 다양한 성장 과정을 통하여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은 볼 때 우리는 그들의 행동과 주님께서 주신 생의 율법간에 유대 관계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동 심리학자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성장의 4단계론에 동의하고 있다. 그 4단계란 (1) 완전 자기 중심기, (2) 판단의 기준으로 함축성과 장기적인 안목의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시기로 책임감과 이성을 갖는 시기, (3) 신체적 성숙기, (4) 사회의 책임감있는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최종 준비기를 말한다. 이러한 자녀의 성장 단계와 주님의 율법과의 유대 관계를 자녀의 일생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두 가지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다.

(1) 자기 중심기

부모는 어린 아기의 자연적인 이기주의적 경향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부모나 아동 심리학자들이 이 경우에 보이는 반응은 모두 판이하게 다르다.주님의 단순한 계획은 말일의 예언자와 사도들이 여러 번 권고하신 바와 같이 어린 자녀에게 부모를 순종하고 자신의 욕망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희생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중요성을 보여 주고 있다.

네 가지 표준 경전 중에서 특히 성경은 이와 같은 원리를 가르치는 가장 유용한 도구이다. 구약전서에 거듭 나오는 순종과 희생에 대한 이야기는 이 연령층의 어린 자녀에게 감명을 줄 것이다.

우리는 자녀에게 이러한 개념을 가르치려고 노력하면서 때때로 그들의 이해력에 놀라기도 하였다. 어느 추운 겨울 밤 아이들을 목욕시키고 데리고 나왔을 때 네 살된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 "아빠, 마이커를 먼저 닦아 주세요. 내가 희생할래요. 여기 앉아서 잠깐 떨고 있으면 돼요."

(2) 책임감과 이성을 갖는 시기

자녀가 자라면서 주님 앞에서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 성장함에 따라 복음의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기초를 굳건하게 하고 성신을 동반자로 모실 수 있게 하여 동년배로부터 오는 강한 압력이나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유혹을 극복하게 돕는다. 성경과 몰몬경에 아름답게 설명된 것과 같이 신앙, 회개, 침례 그리고 성신의 은사에 대한 원리는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설명하며, 동시에 올바른 길에 서게 하고, 혹 잘못된 길에 빠졌을 때 곧 돌이키게 한다.

(3) 장차 부모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시기

신체적으로 성숙해지고 사회 활동을 많이 하면서 더욱 많은 유혹을 받게 되나 이러한 것도 순결의 법을 지킴으로써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사춘기를 지나는 동안 부모는 말과 행동으로 몸과 정신의 순결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신전 가먼트는 부모가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것을 명확히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독립심을 갖는 시기

청년이 좀더 독립하기를 원하고 가정 밖에서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려 준비하면서부터, 교리와 성약에 잘 설명되어 있는 헌납의 율법은 그에게 왜 그가 재능을 부여받았는지, 어떻게 재능을 개발하고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정

확한 통찰력을 갖게 해주며, 그의 재능은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시온을 건설하는 데 사용하도록 주님이 주신 것으로 청지기의 직분과 관련된 것임을 알게 해준다.

부모로서 이 원리를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자녀가 순종하기를 배우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기를 배울 때, 자녀가 그의 생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고 성신을 받아 그의 지시와 인도를 받을 때, 자녀가 깨끗하고 순결한 생활을 하며,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헌납하여 주님께 봉사할 때, 그 자녀는 주님이 쓰실 성별된 도구로써 준비된 자가 된다.

이상의 율법 이외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에게 주님께서 규정해 주신 범주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고, 늘 주님의 지시를 구하게 하며, 일용할 육과 영의 양식을 취하게 하는 각성제를 늘 받는다. 언젠가는 "모든 자가 무릎을 꿇으며, 모든 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것"(교성 76:110 참조)이라는 예언은 자녀와 부모로 하여금 참된 영원한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며,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현재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하든지,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알게 되리라는 것을 이해하면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유혹을 극복하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질서있게 가르치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칠 수 있다.

그의 모범은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지도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데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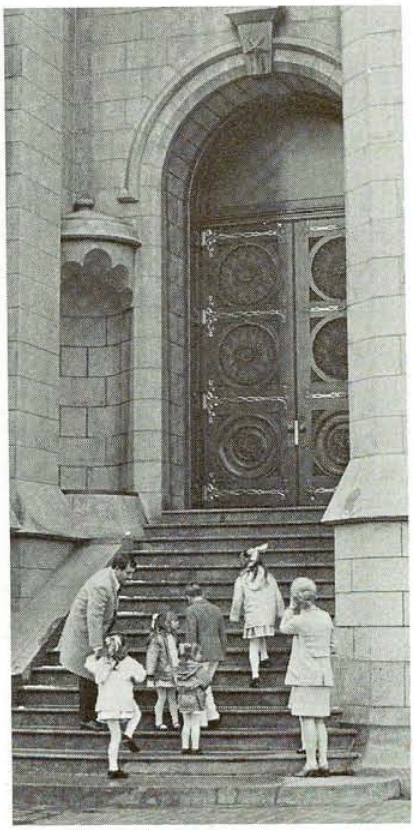
첫째,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같으시다"그는 "내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을 두고 같으니라"(니이 29:9 참조)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를 신뢰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로서 아들이 집을 비운 월요일에는 꾸중했다가 수요일에는 똑같은 경우인데도 아무 말도 안한다면 우리는 아들에게 일관성에 대한 안정감을 주지 못하게 된다.

둘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계명은 영원한 율법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니, 이는 계명이 우리의 이해력과 생활 태도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니파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니일 3:7)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는 그들에게 그들이 행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두 살 된 아들에게 "차도에 가지 말라"고 명했다. 언젠가는 그도 다섯 살 된 형이 받은 것처럼 "길을 건널 때는 양쪽을 잘 보고 건너와"라는 좀더 높은 규율을 받게 될 것이다. 계명은 그것대로 살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준하여 변한다. 그러나 계명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영원한 율법은 변하지 않는다.

주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계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것을 순종하지 않을 때 오는 결과를 말씀하신다. 때로는 "당연한" 결과가 따르지만, 종종 주님은 자비를 베푸사 기근, 질병, 전쟁 등과 같은 벌을 내려 그들이 영원한 죄악의 결과 즉 주님으로부터의 영원한 이별을 맛보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우리는 때때로 자녀에게 그들의 행동의 당연한 결과를 겪도록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자녀에게 도움의 손을 주거나 다른 벌로 이를 대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번잡한 차도로 마구 뛰어 들어 가는 것의 당연한 결과는 비참한 재난이 되기 때문이다. 미리 결과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면 자녀는 안전을 위해 주의심과 책임감을 갖게 된다.

세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다. 그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네게 맡기노라"(모세서 3 : 17)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아담의 어깨에 선택의 책임을 맡기셨다. 주님은 아담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치셨으며, 아담신이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게 하셨다. 자녀는 상벌은 그들 자신의 선택의 직접적인 결과임을 곧 배우며, 결과를 분명하게 설명해 줄 때 자녀는 벌이 공정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그 다음 우리는 청지기의 직분을 자녀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녀에게 준 청지기의 직분을 존중해야 합니다.

네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성약*"을 맺으신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약속을 맺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는 부모와 자녀 모두가 약속을 상기하게 된다. 자녀가 어떤 일을 다하기로 약속했거나, 어떤 방법으로 행동하기로 약속해서 그것을 이행하였을 때, 그 자녀는 고결한 성품을 쌓게 되고 발전하게 된다.

다섯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책임질 임무를 주시며, 우리의 관리의 결과를 그에게 보고하기를 원하신다.

자녀에게 각자의 방을 정규적으로 청소하게 하거나, 강아지에게 밥을 먹이는 일 등의 직분을 주면서 우리는 그들의 직분을 존중해야 하며 그것을 대신 해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 아이들은 침대 정리하는 것이 으레 자기들의 책임임을 알고 있다. 우리는 아이들의 침대를 정리해 주지 않을 뿐더러, 혹시 아이들이 정리를 잘못하여 주름이 져 있더라도 펴 주지 않는다.

우리가 이 직분을 각 아이들에게 주었을 때, 우리는 아이와 함께 하나 하나 함께 하면서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 주면서 올바른 원리를 가르쳐 주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이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직분을 결코 주려 하지 않는다.

여섯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친구*"이시다. 그는 사랑스럽고 친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그의 곁으로 이끄신다. 우리는 부모로서 (1) 자녀와 함께 차근 차근 일을 처리하고, (2) 자녀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3) 자녀와 함께 마음을 터놓고 서로 공감을 나누며, (4) 자녀를 격려하고, (5) 자녀를 비판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이해하려는 태도로 그들의 말을 들어 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모범을 본받을 수 있다.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지도하는가를 아는 것은 자녀를 주님의 면전으로 돌려 보내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성스러운 책임의 모범이 되시어 우리로 하여금 따르게 하셨고, 그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록한 경전을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공부하게 하셨다.

신전은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해준다. 신전은 창조, 구원의 계획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의 참다운 관점에서 이 지상의 생활을 보게 해준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도록 훈련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을 때,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철학은 한낱 부질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진실로 모든 것이 그의 손 안에 있으므로 죄만을 제외하고는 비극이란 있을 수 없다.

매일의 가정 생활을 이와 같이 행하면 이러한 관점은 평화와 행복을 심어 주는 의미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여러 가지 고난, 재정적인 곤란, 사망 등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몸소 모범을 보이신 진실한 원리에 순종하면 궁극적인 기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좀더 주님과 같이 되고자 하듯이, 주님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우리는 너무 성스러워서 기록할 수 없는 것을 좀더 배우게 된다. 또한 모든 면에서 그의 모범을 따르려고 노력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집과 같이 영이 임하는 분위기를 이루려고 노력한다.

로저 메릴은 교회 인사 보조 책임자이며 아론 신권 및 청년회 위원회에서 봉사한다. 그의 아내 리베카는 테일러스빌 유타 웨스트 스테이크의 테일러스빌 제17와드의 상호부조회 지휘자이다.

경전은 점성술, 복술, 영매, 마술, 요술, 강신술을 어떻게 보나?

로버트 제이 매튜스

최근 몇 년 동안 서구 세계에서는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종교에 일반의 관심이 크게 집중되어 왔읍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축복사나 예언자의 영적인 성품이 재현되는 과정이 아니라 진정한 예언자들이 맹렬히 반대해 오던 마술이나 요술에 가까운 것이었읍니다. 일례로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레위기 19 : 31)

또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가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 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네가 쫓아 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복술가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신명기 18 : 9-14)

우리는 위의 말씀에서 점성학, 영매술 등이 예언자나 축복사가 가르친 참된 종교가 되지 못하며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간 인근 주변 나라에서 실시되던 거짓 종교의 특성임을 분명히 알 수 있읍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가르침의 영향력은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찌니라"(신명기 18 : 15)

그러므로 이 성구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인도를 점술자나 복술가에게 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하신 종인 예언자를 통하여 그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예언자 중의 한 사람이었읍니다.

이 성구는 또한 모든 예언자가 모범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관해서도 직접적으로 암시해 주고 있읍니다. 우리는 예수와 관련하여 다른 구절과는 별개로 15절을 인용하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짓 예언자와 참된 예언자를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교도의 미신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예언자요 선지자요 계시자가 소유한 참된 은사와는 배치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길흉을 점치는 자나 영매의 주문을 외우는 사람에게 영적인 인도를 간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이 모든 것이 거짓 종교요, 세상의 미신을 나타내는 것임이요, 이러한 미신을 행하는 자는 참으로 참된 사도와 예언자와 다투며 경쟁을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사야 8 : 19-20)

진정한 예언자가 복술가나 점성가나 요술가나 마술사보다 훌륭하다는 것은 갈대아 술사와 가진 다니엘의 경험에서도 잘 설명됩니다.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며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일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브갓네살왕에게 후일에 될 일

을 알게 하셨나이다…" (단 2 : 2-28 참조)

이처럼 모세와 아론은 애굽의 술객들보다 더 큰 능력을 지녔었읍니다. (출 7 : 10-12 참조)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은 참된 예언자의 경고를 듣지 않고 이웃 나라의 거짓 종교를 믿기 시작했으며 특히 이스라엘 왕 아합의 사악한 왕비인 페니키아인 이세벨이 전한 종교를 숭상하게 되었읍니다. 복술과 사술을 행하는 이 거짓 종교는 열왕기하 17장 16-18절을 읽어 보면 알 수 있읍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그 결과 이스라엘은 곧 앗수르 군대에 정복당하게 되었읍니다.

약 한 세기 후에 남쪽의 유다 왕국에서 성품이 어진 요시야 왕이 많은 개혁을 단행하였읍니다. 이에 대한 성구를 찾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읍니다.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열 두 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열왕기하 23 : 5, 24)

신약 시대에 바울이 구브로 섬에서 선교 사업을 할 때 "거짓 선지자 박수"인 엘루마가 바울의 가르침에 맞서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 섬의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힘썼읍니다. 이에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궤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행 13 : 6-10)라고 말했읍니다.

바울이 이 박수에게 한 말에는 조금의 잘못도 없읍니다.

후에 에베소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여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읍니다. 이에 대해 경전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오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행 19 : 18-20)라고 기록되어 있읍니다.

참된 주님의 편에 서게 된 사람들에게는 거짓된 종교적 사술을 기록한 "마술"의 책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읍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삼상 15 : 23) 라고 예언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훈계한 바와 같이 이같은 미신 숭배에 고의로 참여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경전에는 사울이 주님의 영을 잃었던 때 미신적인 심령주의에 빠지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읍니다. (삼상 28 : 1-20 참조)

바울은 최후로 갈라디아인에게 "술수"는 "육체의 일" 중의 하나 라고 말했으며 주님의 영을 지닌 사람들은 이에 빠지지 않는다(갈 5 : 19-21 참조)고도 말했읍니다.

마법사와 영매와 무당의 요술과 주문은 세상의 거짓 종교와 미신의 특성이며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참된 예언자요 사도에게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정신을 알고 그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형태의 복술이나 마법과 가까이 하는 것을 원치 않읍니다.

매티우스 박사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조교수를 재직하고 있으며 고대 경전을 가르치고 있다. 교회에서는 교회 성인 협의 위원회에서도 봉사하고 있다.

이 세상의 끝까지

새로운 국제 조직에 관한 좌담회

1973년 초, 대관장단은 지구의 외각 지역에 살고 있는 교회 회원을 돕기 위한 국제 선교부의 조직을 발표한 바 있다. 선교부장으로는 십이사도 보조인 버나드 피 브록뱅크 장로가 부름받았다.

다른 선교부와는 달리, 이 국제 선교부에는 복음 선교사가 없으며, Church Adiuinitration Building 47 East Sou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1에 본부를 두고 있다.

최근에 십이사도 정원회 선교부 담당 고문인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와 브록뱅크 선교부장을 모시고 선교부의 발전에 관한 의견을 나누어 보았다.

문 : 국제 선교부의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헌터 장로 : 국제 선교부의 목적은 스테이크나 선교부가 조직되지 않은 곳의 주민에게 교회 단위를 갖게 하여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려는 데 뜻이 있읍니다.

문 :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도움을 받았읍니까?

헌터 장로 : 도움을 받았다면 그들 지역의 교회로부터 받았을 뿐입니다.

문 : 국제 선교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선교부와 다른가요?

브록뱅크 장로 : 다릅니다. 완전하게 조직된 선교부에는 복음 선교부에는 복음 선교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의 책임도 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 : 이 선교부 관할 하의 회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브록뱅크 장로 : 그 수효는 수시로 변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약 500명 정도가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회원 수도 약 500명 가량 더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문 : 그 500명이 다 어디에 있읍니까? 큰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 있읍니까?

헌터 장로 : 가장 크게 조직된 그룹이 아이스랜드에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원의 수도 가장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한 곳을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 태평양에 있는 이스터 섬이라는 작은 섬에도 회원이 있고 남미와 아프리카 중간에 어센션 섬이라고 불리우는 작은 대서양 섬이나 마다가스칼에도 회원이 있읍니다.

문 : 국제 선교부의 대부분의 회원이 미국 시민이지요?

브록뱅크 장로 : 대부분이 그렇죠. 그렇지만 영국, 독일, 캐나다 등의 여러 나라의 회원도 있읍니다. 군인, 외교직, 상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읍니다. 영국 회원 중 한 사람은 큐바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큐바는 저희들이 맡은 지역이 아닙니다만 아무도 이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교류를 가졌던 것입니다.

문 : 실질적으로 국제 선교부의 회원을 어떻게 돕고

있읍니까? 정규적으로 개인적인 접촉을 갖습니까?

브룩뱅크 장로 : 서신, 교회 프로그램, 교회 책자로 모든 일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전하는데, 대개 그들이 하려고 하기만 한다면 모든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읍니다. 우리는 회원에게 모든 문학 작품과 자료, 소책자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접촉이 가능한 회원은 가정의 밤 교재를 갖고 있읍니다. 우리는 각 회원과 적어도 두세 달에 한 번씩 서신을 연락하려 하고 있으며 그룹 지도자는 지부장과 매달 1회씩 서신 연락을 취하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헌터 장로 : 사회와 격리된 가정이라도 우리는 상호부조회 공과를 주고, 주부에게 상호부조회의 일을 하게 할 수 있읍니다. 초등협회도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지요. 소년이 집사 신권을 받을 연령에 이르게 되면 부모에게 전갈을 보내어 아들을 성임 받도록 준비시키게 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8세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가족에게 그 자녀의 침례를 계획하게 합니다.

문 : 그룹 지도자나 지부장을 통하여 일을 처리하게 되는 곳도 있읍니까?

헌터 장로 : 네, 선교부장이 그들을 임명합니다. 한 사람이 국제 선교부 관할하의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의 교회 기록은 와드를 이전할 때와 마찬가지로 국제 선교부로 이전된다는 것으로도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 : 회원들을 국제 선교부로 옮기는 데 감독과 지부장의 역할이 중요합니까?

헌터 장로 : 물론입니다. 우리가 회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을 그들이 완전히 알고 이해한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리라 생각합니다.

문 : 어떠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여러분과 접촉하기를 원하십니까? 선교부가 확실히 없는 곳으로 어떤 사람이 가려고 한다는 소식을 아무한테서나 듣기를 원십하니까?

브룩뱅크 장로 : 가장 좋은 방법은 국제 선교부로 직접 이름과 주소, 회원 기록 카드가 보관된 소재지, 그리고 그들 자신에 관한 기타 사항등을 적어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즉시 연락을 취하여 회원 기록 카드를 확인하고, 그들에게 지시와 권고를 주게 됩니다.

헌터 장로 : 먼 지역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브룩뱅크 부장에게 서신을 보내면, 브룩뱅크 부장은 그들이 그곳에 가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과 도움이 될 다른 교회 회원에 대한 정보를 그들에게 제공해 줄 것입니다. 브룩뱅크 부장에게 속히 연락을 취하면 취할수록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문 :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가족을 서로 알려 주는 일도 자주 하십니까?

브룩뱅크 장로 : 매일 저희들은 외국 사업차 떠나는 사람으로부터나, 또는 이미 그곳에 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지역에 회원이 있는지 알고 싶다는 문의를 받고 있읍니다. 그들은 300내지 400킬로 정도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면서도 서로 서신을 연락하여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지내는 회원이 많읍니다.

헌터 장로 : 외국인으로 출장을 떠나게 된 사람에게 편지가 온 것이 있었는데, 그는 여러 곳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할 수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는 브룩뱅크 장로에게 교회 회원이 많은 곳을 문의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그의 선택에 큰 비중이 되었읍니다.

브룩뱅크 장로 : 외지에 회원이 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국제 선교부에 알려 주시고, 할 수 있으면 주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회원과 속히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제 선교부는 그가 현재 거처하고 있는 곳 뿐만 아니라 과거에 어디에 있었는가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의 회원 기록 카드를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헌터 장로 : 네, 그와 같은 경우가 종종 있읍니다. 부모와 자녀의 이름을 알게 되면 매우 도움이

되겠읍니다. 개인 단 한 사람의 이름 만으로는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우리가 가족 전체의 이름을 얻을 수 있다면 크게 도움이 되겠읍니다.

문 : 국제 선교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사람들이 잘 받고 있습니까? 그들을 교회와 가까이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브룩뱅크 장로 : 회원들이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는 그들이 교회의 관심과 유대에 매우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읍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교회와의 유대를 지속시켜 주기도 합니다.

문 : 그들에게 정규 경전 연구 프로그램을 권장하십니까? 예를 들자면 그들은 주님과 교회를 가까이 하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합니까?

브룩뱅크 장로 : 가정과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지에 가있을 때 받는 편지가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과 친절로 서신 연락을 취하면서 그들이 늘 교회에 머물게 하고 그들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의 인사를 전하고, 대회에서 하시는 예언자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대관장단 말씀을 복사하여 그들에게 읽도록 권장하고,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없는 생활을 하도록 격려합니다. 회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유혹을 받는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둔다면 여러분은 서신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때때로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교회의 접촉은 그들의 신앙과 간증을 크게 해주며, 그들이 언젠가는 교회와 접촉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문 : 와드나 지부에 편히 앉아 있는 우리가 어떻게 아이스랜드나 마다가스칼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브룩뱅크 장로 :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의 가족과 친구와 서신을 왕래할 수 있읍니다.

헌터 장로 : 봉사의 기회를 찾고 있는 청년반 또는 특별 이해반 회원들이 아이스랜드나 마다가스칼 또는 기타 가능한 곳의 가족을 '입양' 할 수도 있읍니다. 국제 선교부를 통해서 가족과 접촉할 수 있읍니다.

문 : 이 사업을 하는 데에 특별한 즐거움이 따르겠군요.

헌터 장로 :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이 국제 선교부를 조직하도록 결정을 내렸을 때, 브룩뱅크 장로를 회장으로 임명했을 때, 나는 앞으로의 전망에 크게 기대와 열의를 가졌읍니다. 나는 이 선교부가 복음의 혜택을 받지 못할 많은 사람들의 생애에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기구임을 알고 있읍니다. 국제 선교부는 교회를 찾는 사람을 돕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혜택을 입으리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우리가 달성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 때, 이 프로그램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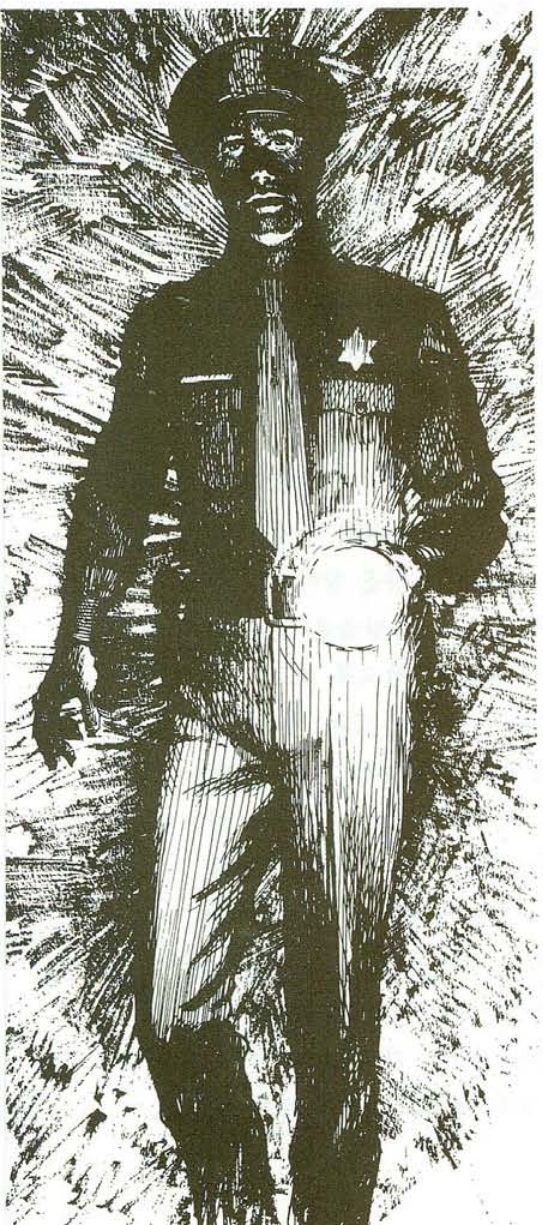
브룩뱅크 장로 : 오늘날 교회는 개개인에 대해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많은 교회의 프로그램이 개개인을 위해 마련되고 있읍니다. 국제 선교부의 설립 목적은 온전한 조직을 갖춘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에 있는 교회 회원을 찾아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는 데 있읍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모든 성도가 주님의 교회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잃은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주셨읍니다. 주님은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넣고 무리에서 떠난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읍니다.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길을 잃은 자들은 아니지만 교회의 선교부 또는 스테이크와 같은 조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늘 손길을 펴고 그들을 가까이 하여,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축복을 받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 축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교회와 주님이 모두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으며, 주님이 예비하신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 때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와 사도를 가까이 하게 되며 주님의 방법대로 살고 교회 프로그램을 따르게 됩니다.

총관리 역원의 이야기

에스 딜워스 영 형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

나는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 앞에 서서 이야기할 때면 언제나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대학 공부를 일년 마치고는 전쟁에 나갔읍니다. 나는 그 아이가 용감하게 전쟁터로 나갔다고 생각하고 싶읍니다.



모병 책임을 맡은 상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읍니다. "통신, 취사, 외국어, 정보, 위생 등의 병과를 위한 학교가 있읍니다". 이 상사는 약 8개 병과 학교를 들더니 만일 여러분이 원하는 경우 이들 학교 중 한 학교를 택할 수 있다고 말했읍니다. 그는 이어 "여러분은 학교를 택할 수도 있고 전쟁터를 택할 수도 있읍니다"라고 말했읍니다. 내 아들과 다른 한 청년은 "우리는 전쟁터를 택하겠읍니다"라고 서슴없이 말했읍니다.

나는 그 뒤에 아들에게 "왜 전쟁터를 택했지?"라고 물었읍니다.

이에 그는 "누군가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하지 않읍니까?"라고 대답했읍니다. 그는 자기가 전쟁터를 피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도록 하는 것은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읍니다. "만일 이 전쟁에서 저는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어야 한다면 저는 그같은 양심의 괴로움을 못참을 것같읍니다."라고 아들이 말했읍니다.

그 아들은 지금도 내게는 여러분 또래의 20세 청년입니다. 따라서 나는 여러분에게 아들에게처럼 이야기하겠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충고는 바로 아들에게 주고자 하는 충고입니다.

나는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읍니다. 한 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그 때의 상황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고충이 따릅니다. 더우기 그 거짓말이 폭로되면 그 단 한 번의 일로 상대방은 여러분을 평생토록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만일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신뢰를 요하는 직책이나 유익을 주는 위치에 있을 때 지난날의 거짓말을 기억하고는 여러분을 믿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오래 전에 회개하여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러분이 정말로 회개를 하였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한편 여러분이 무슨 일에서나 정직하다면 이는 여러분의 명성내지는 명예를 지켜 줄 것입니다.

나는 이에 대한 좋은 경험을 갖고 있읍니다. 나는 유타주 프로보에서 소년단의 어떤 활동에 관여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아내가 몸져 눕게 되었읍니다. 나는 집을 떠나면서 그날 저녁 오후 6시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읍니다. 나는 아내의 침대 곁에 음식을 차려 두고 아내를 혼자 집에 둔 채 집을 떠났읍니다. 그 때 아내는 조금도 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읍니다.

그런데 프로보에서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나는 11시가 되어서야 집에 갈 수 있었읍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나는 몹시 아내가 걱정되었읍니다. 그 당시의 도로 사정은 지금과 같지 않아서 집까지 가려면 도중에 있는 마을을 전부 거쳐야 했읍니다. 나는 12시 경에 솔트레이크를 지났읍니다. 고속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계속 차를 몰고 가는데 만월의 밝은 달밤에 차의 전조등까지 밝아서 나는 대낮처럼 차를 운전할 수가 있었읍니다. 더우기 그 길을 달리는 차는 내가 탄 차 밖에 없었읍니다. 나는 집으로 이어지는 산길을 오르기 위해 교차로에서 속도를 약간 줄여 방향을 바꾼 다음에는 다시 속력을 높여 시속 110킬로의 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읍니다. 그 도로의 사정으로는 이같은 속력은 대단히 빠른 것이었읍니다. 나는 힐

아들에게 주

는충고

필드를 넘어가는 길을 삽시간에 지나 웨버캐년으로 내리받이 길을 달렸읍니다. 고개길을 반쯤 내려 오는데 백미러에 붉은 전등불이 비취는 것이었읍니다.

교통 순찰반이 힐필드의 도로 옆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차를 세운 다음 내렸읍니다. (밤에 경관의 검문을 받으면 차에서 내려 두 손을 다 내밀고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는 게 통례였읍니다. 벌써 밤 한 시에 접어 들었읍니다.)

내가 차에서 몇 걸음을 걸어나와 서자 경관 순찰차의 전조등이 나를 비췄읍니다. 그는 약 30미터 후방에서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내게로 왔읍니다. "면허증과 차 등록증을 보여 주십시오"라고 경관이 말했읍니다. 내가 차 등록증을 가져다 주자 그는 그것을 보더니 운전 면허증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읍니다.

나는 "과속으로 저를 처벌하시려는 거죠"라고 말했읍니다.

그러자 경관은 "네 그렇읍니다. 선생님은 시속 60마일 이상의 과속으로 달렸읍니다"라고 대답했읍니다.

나는 "70마일 이상의 과속으로 차를 몰았읍니다"라고 말했읍니다.

그리고 나는 "제발 호출장을 하나 떼어 주십시오. 빨리 집으로 가야 합니다. 아내가 몹시 앓고 있는데 아무도 돌봐 줄 사람이 없답니다. 벌금을 내겠읍니다. 제발 집으로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읍니다.

그러자 그는 "호출장을 떼지는 않겠읍니다. 경고장을 떼겠읍니다. 다시는 과속으로 차를 운전하지 마십시오. 경고장을 받고서는 법원에 갈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나 만일 다시 교통 법규를 어기면 법원에서는 두 가지 교통 위반에 대해 벌금을 과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읍니다.

나는 왜 그가 단지 경고장만으로 그치는지 알 수가 없었읍니다. 그는 경고장을 써서 내게 건네 주며 보통 경관이 잘 하지 않는 동작으로 손을 내미는 것이었읍니다. 그는 나에게 "제 이름은 비비입니다. 나는 캠프 키즐 소년단의 단원이었읍니다"라고 자기 소개를 했읍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줄곧 "내가 만일에 그에게 거짓말을 하였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나"라는 생각을 하였읍니다. 만일 여러분이 거짓말을 한다면 그 거짓말을 평생 잊지 못하며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여러분의 영혼을 괴롭힐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아들에게 주고 싶은 충고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거짓 증거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항시 거짓 증거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한 일이나 다른 사람이 했으리라고 짐작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의 이야기가 아니면 남에 대한 이야기를 삼가라"는 말을 많이 들어 왔을 것입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에 대한 증언을 할 경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심히 다른 사람들의 행위나 행적에 대해 그것이 확실한 것인지도 모르고 평가를 하며 또 그 이야기를 재미로 다른 친구에게 전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나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지 에프 리차즈 형제님이 감리하는 한 대회에서 사를 맡은적 이 있었읍니다. 나는 리차즈 형제님에게 말씀을 부탁했는데 그는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말하시며 계속 대회를 진행해 나가라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래서 나는 이야기를 시작했읍니다.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이야기가 그를 따라 다녀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믿게 되니 거짓 증거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회원들에게 말하였읍니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이었읍니다.

바로 내 뒤에 리차즈 형제님이 서서 "내 마음이 바뀌었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읍니다.

그는 대략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오래 전에 내가 한 스테이크의 고등 평의원으로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 대해 심한 비판을 했읍니다. 우리는 그 비판받은 사람을 재판에 회부할 것인가에 대해 의논했읍니다. 결국 스테이크 부장님이 개인적으로 그와 만나 이야기를 하기로 하였읍니다. 스테이크 부장님과의 개인 접견 결과 다행스럽게도 그는 그같은 비판을 받을 죄를 짓지 않았으며 그러한 일이 일어난 때에는 그곳에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읍니다.

그는 다른 먼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저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리차즈 형제님은 계속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시고는 자리에 앉으셨읍니다. "40년이 지난 후 바로 그 사람이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직책에 부름을 받기 위해 지지를 물을 때 나는 그에 관한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판명된 것을 잘 알면서도 혹시 그 이야기가 정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반대 의견을 물을 때에 손을 들지 않도록 제 자신을 자제하여야만 했읍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다시 나의 이야기가 계속되었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읍니다. 만일 여러분에 대해 거짓 소문이 돌게 된다면 여러분은 제가 말하는 이야기를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젊은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요나

존 에이 트베트네스

요나의 이야기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몇 가지 사항을 들어 그 역사적 전거를 놓고 의문을 표시해 왔다. 첫째 어떤 지명(니느웨, 욥바, 다시스)이 언급되기도 하나 이야기가 모호하며, 일예로 니느웨의 왕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구약전서에서는 니느웨인들의 극적인 회개의 이야기만 언급하고 있다.

세째, 구약 중의 요나를 그 책의 성질로 보아 몇몇 전문가들은 히브리인 하나님의 만유하심과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순전히 허구의 이야기라고 믿는다는 점이다.

(역사적인 배경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네째, 사람을 한꺼번에 삼킬 수 있을 만큼 큰 목구멍을 가진 고래나 또는 다른 물고기가 없다는 것이다.

첫째, 둘째, 세째 주장은 부정적인 성격을 띤 주장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주장이 못된다. 어떤 한 가지의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없이 사실을 기록하는 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로 인해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역사적으로 볼 때 그같은 회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도덕적으로 볼 때 매우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 주는 기록이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라는 부름을 받고 불안해 한 것은 앗시리아인들의 잔인성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 예로 앗시리아의 왕 앗슈내시팰 2세는 그가 부녀자와 어린이를 포함한 포로들을 잔학하게 고문한 방법을 이야기하였다. 물을 주지 않아 갈증으로 죽게 하거나 투옥하여 산 채로 화형에 처해 포로를 죽였다. 또 어떤 포로는 말뚝에 박아 살갗을 벗기고 햇빛에 말라 죽게 했다. 지금 널리 알려져 있는 니느웨의 세난체립의 벽화는 라기스를 탈취하는 그림으로 앗시리아인이 이스라엘인 포로들을 이그림에서처럼 고문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운이 좋은 포로들은 손이나 귀나 손가락이나 코를 잘리우거나 두 눈을 뽑혀 장님이 되는 가벼운 고문을 받았다. 따라서 요나의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요나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또는 고래에게 삼키는 등의 가진 어려운 고통을 다 겪은 후에 사악한 니느웨 백성들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회개를 외치기로 결심했다.

예수님이 요나를 들어 말한 것은 요나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더욱 뒷받침해 주고 있다. (마 12 : 38-41 ; 16 : 4 ; 눅 11 : 29-30 참조) 그리스어로 된 신약전서에는 "고래"란 낱말이 쓰이고 있는 데 반하여 히브리어로 된 경전에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욘 1 : 17)라고 기록되어 있어 매우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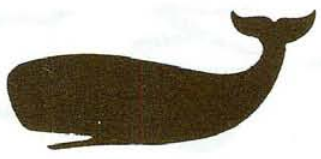
물고기 또는 고래를 "예비"하셨다는 사실은 그 동물이 예사 동물과는 달라서 사람을 쉽게 삼킬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자료로 고래에게 삼켜져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사람의 기록이 있다.

1891년의 일이었다. 포크랜드 군도에서 얼마 떨어진 바다에서 고래잡이를 하던 포경 어부 일단이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고래 한 마리가 등에 창이 꽂힌 채 잠수하였다가는 다시 물 위로 떠올라 어부들이 타고 있는 작은 배를 덮쳤던 것이다. 이 작은 배에 탄 세 명의 어부는 그들이 모선으로 돌아갈 겨를이 없었다.

그날 저녁에 죽어 가는 이 고래가 다시 물 위에 떠올라 포경선에 잡히고 말았다. 선원들이 고래를 토막으로 자르는 작업을 시작했는데 실종된 세 어부 중의 한 사람인 제임스 바틀리란 사람이 고래의 배안에서 나왔다. 그 사람은 이 포유 동물의 해저 감옥에 갇혀 15시간을 견디어 낸 것이다. 고래의 위 속에 있는 산 때문에 바틀리씨의 살갗은 영구히 흰색으로 표백되었고 머리털도 다시는 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시력도 거의 잃었다. 바틀리씨는 더 이상 배를 탈 수가 없어 제화공으로 전업하여 남은 여생을 보냈다.

불과 몇 십년 전에 일어났던 이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요나의 이야기도 믿을 수 있게 된다. 아밋대의 아들 예언자 요나는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왕하 14 : 25 참조)

트베트네스 형제는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서 인류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으며 예루살렘 지부의 지부장단 보좌로 봉사하고 있다.



성신의 은사

성찬식 간증회에서 우리는 여덟 살이 되었거나 그보다 나이가 든 소년 소녀(때때로 침례를 받은 나이든 개종자도 있다)가 단 앞에 나와 아버지나 또는 다른 대신권 소유자의 안수를 받는 모습을 흔히 보게 된다. 안수를 받는 사람은 의자에 앉게 되며, 안수 기도를 하는 신권 소유자와 몇몇 형제가 앉아 있는 사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그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한다.

이 기도문은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하다. "…그대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하노라 그리고 말하노니 성신을 받으시라"

경전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아야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준다.

성신은 매우 특별하고 성스러운 인격체이다. 성신은 신회의 일원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는 우리와 같이 살과 뼈로 된 몸을 갖고 있으나 성신은 오직 인간의 형태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성신은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여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지 않고서도 그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영이다.

성신은 옳고 그른 것을 우리에게 알려 준다. 성신은 우리를 인도해 주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을 상기시켜 주며 우리가 환난에 처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준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조용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성신의 도움을 구할 때 성신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준다. 또 성신은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이 진실됨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증거해 준다.

멜기세덱 신권의 권능으로 "성신을 받으라"는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은 그의 온 생애를 통해 그에게 도움을 줄 값진 은사를 받게 된다. 주일학교나 초등협회에서 부르는 다음 노래의 가사를 잘 생각해 본다.

성신은 밤 동안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보호해 주시고
내 영혼에 빛을 주시네
들으라 들으라 성신의 속삭임을
들으라 조용한 작은 목소리를

혀는 마음의 붓이다

글 : 도로시 리언　　그림 : 셀리 톰슨

옛날 아바두시아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많은 포로를 데리고 개선하였다.

왕은 왕비에게 "이 얼마나 훌륭하고 늠름한 청년들이오"라고 말했다.

"그렇습니다. 폐하께서는 지혜와 진실만을 말씀하십니다"라고 왕비는 왕을 칭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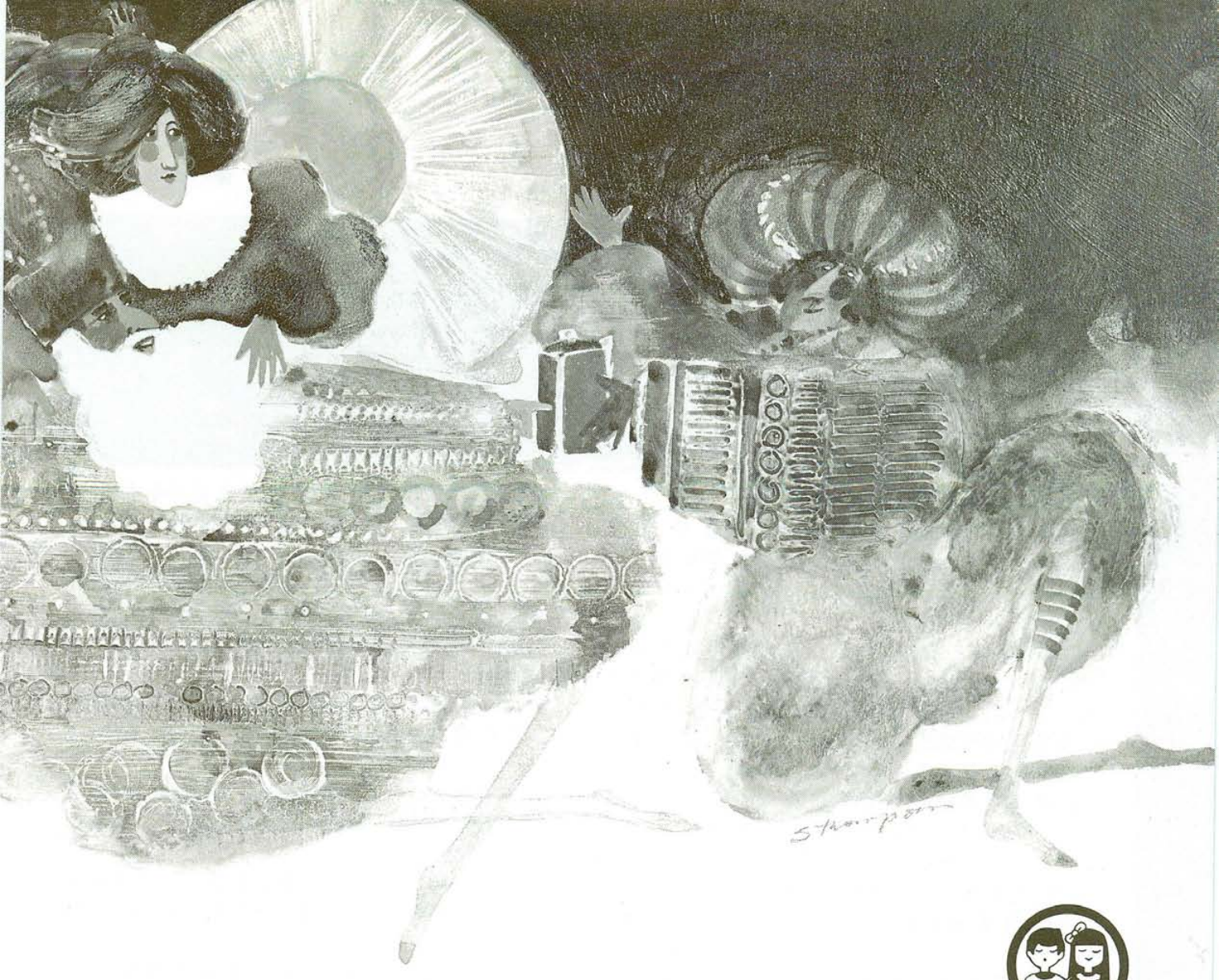
"그러나 이 청년들이 모두 튼튼하고 총명한데 그 중에서 누구를 뽑아 우리 시중을 들게 하지"라고 왕이 말했다.

왕은 지혜가 많은 신하를 불러 "이 많은 포로 가운데 가장 훌륭한 청년을 어떻게 하면 뽑을 수 있겠오?"라고 물었다.

신하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읍니다. 이제 그들을 다음 몇 가지 면에서 잘 관찰해 보십시오. 첫째, 발이 빠르기로 치타와 같은지 둘째, 눈은 독수리처럼 총기를 띄고 있는지 세째, 음성이 양의 소리처럼 부드러운지 살펴 보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가서 좋은 것을 사오게 한 다음 다시 시장에 가서 나쁜 것을 사오게 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왕은 신하의 그 말을 깊이 생각해 보고는 그 말에 따르기로 했다.

이제 포로들 가운데 왕과 왕비를 섬길 자를 뽑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모두가 이 직책에 뽑히기를 원했다. 그래서 모두 앞을 다투며 시키는 일을 해냈다.



한편 왕은 포로들의 일하는 모습, 걸음걸이와 달리기, 이야기, 먹는 것 따위를 관찰하였다. 어느 날 왕은 피라밑처럼 굳세게 보이는 한 포로 청년을 눈여겨 보게 되었다. 그의 걸음은 매우 빠르고도 안정되어 있었고, 눈은 항상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들으니 그의 음성은 마치 미풍의 속삭임과도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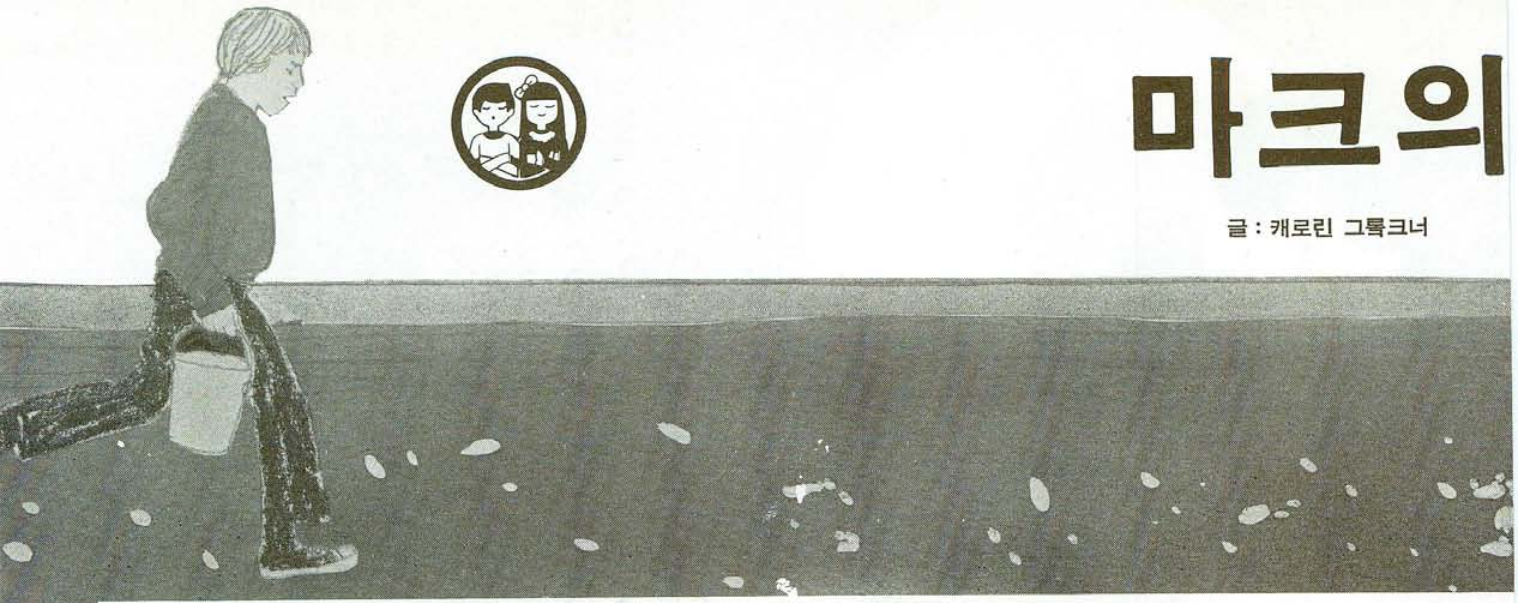
왕은 그 젊은이를 가까이 불러 동전 몇냥을 주고 마을 시장에 가서 좋은 것을 하나 사가지고 오라고 명령했다.

청년은 얼마 후에 혀를 사 가지고 돌아왔다. 왕은 다시 명하여 가장 나쁜 것을 사가지고 오게 했다. 그 청년은 곧 시장에서 돌아왔는데 이번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혀를 사가지고 왔다.

왕은 엄한 목소리로 "이게 무슨 뜻이냐? 짐이 그대에게 좋은 것을 사오라고 해도 혀를 사오고 다시 나쁜 것을 사오라고 해도 혀를 사 왔으니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라고 물었다.

그 청년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네 전하, 전하의 분부대로 거행하였사옵니다. 혀에서는 좋은 것도 나오고 나쁜 것도 나옵니다. 혀가 선하고 의로운 말을 하면 이 위에 더 좋은 것이 없으되 혀가 거짓을 이야기하면 이 위에 더 나쁜 것이 없읍니다."

왕과 왕비는 매우 흡족하였다. 그날부터 이 슬기로운 청년은 왕과 왕비를 섬기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마크의

글 : 캐로린 그룩크너

오늘은 마크는 토요일이 어서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토요일 밤 열시가 되면 한 해 중 가장 깊은 썰물이 되며 그 때에 주노니아 조개 껍질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기 때문이다.

마크의 가족은 금년 봄에 이곳 해변가로 이사를 왔다. 그래서 마크는 조개 껍질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갖가지 모양과 크기가 서로 다른 예쁜 조개 껍질을 수집했으나 아직도 주노니아 조개 껍질을 발견하지 못했다. 단지 책에서만 얼룩진 갈색 정방형 무늬의 바탕에 나선형의 흰 색깔로 윤이 나있는 이 주노니아의 조개 껍질을 보았을 뿐이다. 그러나 마크가 그처럼 바라던 조개 껍질 채집의 꿈은 토요일 일찍 깨지고 말았다. 숙모가 차에서 내리더니 사촌 동생 허브를 차 밖으로 내려 놓는 것이었다.

마크는 도수 짙은 안경을 쓴 허브의 눈이 접시처럼 크고 둥글다는 생각을 했다. 숙모가 사촌 허브를 부축해서 걸어 오는 모습을 보자 마크의 마음에는 동정심이 들었다.

허브는 숙모의 부축을 받아 현관을 들어서면서 "형"하고 마크를 부르며 인사를 하였다.

마크도 "허브야 어서 와"하며 애써 반가운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마크는 지난 번에 허브가 왔을 때 그를 떼어 놓으려고 그에게 준 조개 껍질 상자를 이번에도 또 가지고 온 것을 보고는 마음에 가벼운 죄의식을 느꼈다. 그래서 마크는 "허브야 네가 가고 난 뒤에 수집한 조개 껍질을 와서 봐"하며 허브에게 말했다.

허브는 마크를 따라 마크의 방으로 갔다. 마크는 허브에게 새로 발견한 두개의 조개 껍질을 보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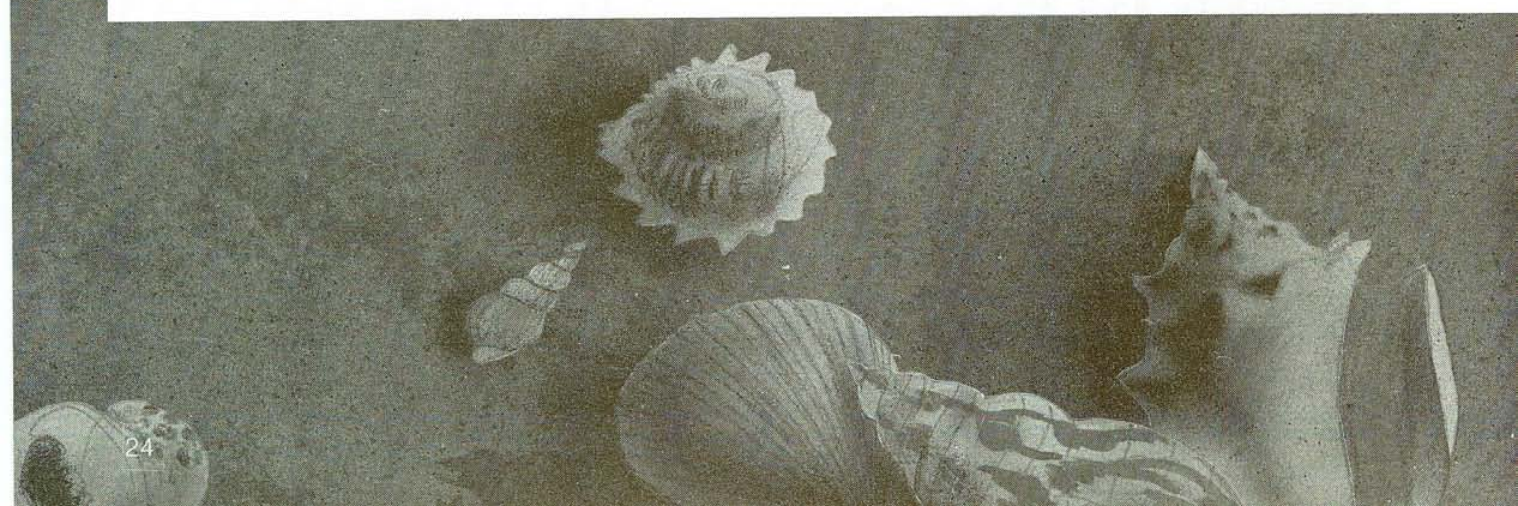
허브는 손가락으로 조개 껍질을 더듬어 만지면서 "아주 귀한 것인데 튜립과 스카치 보넷이지? 그렇지?"라고 말했다.

"그래 맞았어. 그런데 넌 돋보기 안경을 쓰지도 않고 어떻게 정확하게 알아 보니?"하고 마크가 의아스럽게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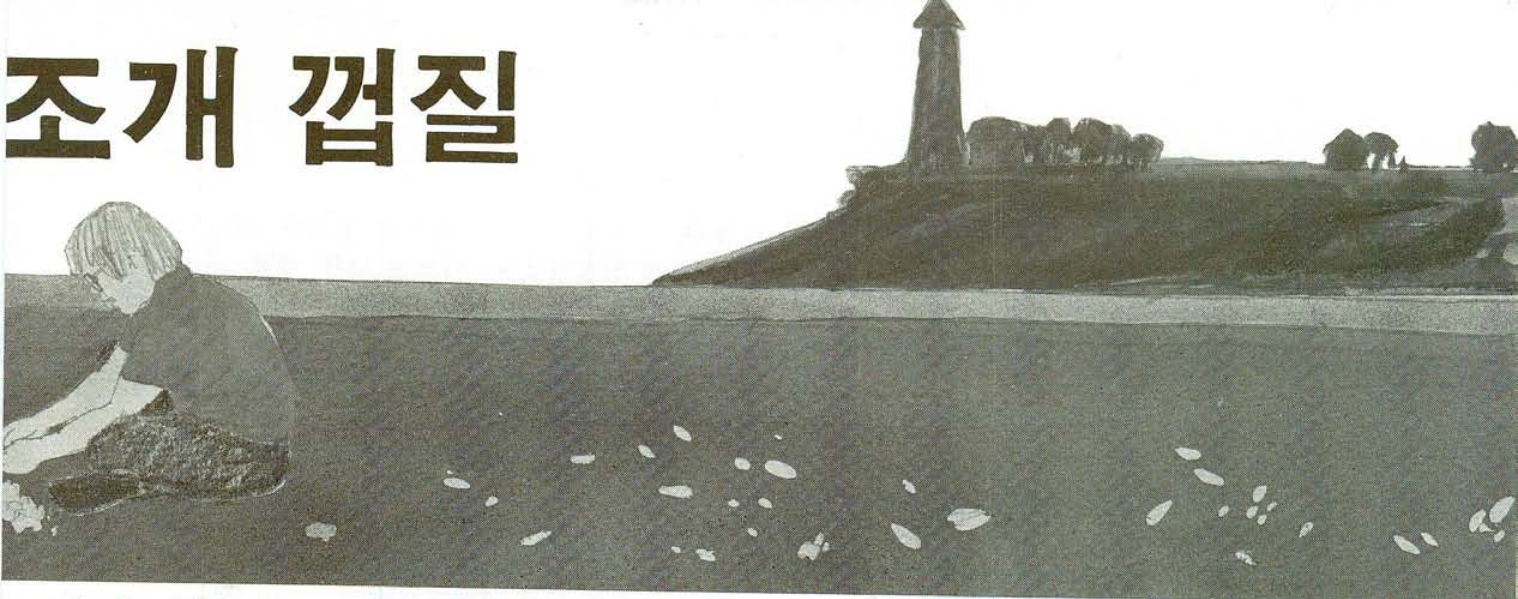
허브는 "촉감으로 알지. 형이 준 조개 껍질을 식별하는 방법을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읽고 배웠어"라고 대답했다.

"형이랑 함께 얼마나 조개 껍질을 줏으러 가고 싶었는지 몰라"라고 허브가 말했다.

"오늘 밤에 물이 빠져. 그 때에 함께 가자"하며



조개 껍질



마크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말했다.

오후 내내 허브와 마크는 마크가 수집해 놓은 조개 껍질을 보면서 보냈다. 마크는 허브가 조개 껍질을 손으로 만져 보고서 종류를 구별해 내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건 뭐야?" 허브는 한 토막밖에 없는 부서진 조개 껍질을 들고 물었다.

"그건 주노니아 조개 껍질 조각이야. 그 껍질은 참 귀하단다. 지금까지 그 껍질을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그 조각밖에 구하지 못했어. 이봐 이 책에 그 주노니아 조개 껍질의 사진이 나와 있어"라고 마크가 말했다.

허브는 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내 들고는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 보았다. "정말 재미있는 조개 껍질인데… 이 책은 참 좋은 책인가봐. 도서관에 있는 그 책에는 이런 사진이 없어"라고 말했다.

드디어 열 시가 되었다. 마크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통과 삽과 회중 전등을 챙겼다. 두 소년은 해변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허브는 걸어 내려 가다가 말고는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나 때문에 형이 빨리 가지 못하지? 난 여기 이 모래밭 위에 앉아서 있을테니 형이 빨리 내려가 조개 껍질을 찾아 봐"

마크는 허브가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두 소년이 해변으로 걸어 가는 동안 마크는 허브가 얼마나 그와 함께 조개 껍질을 찾아 보고 싶어 하는지를 알았다. 다른 사람들은 언제나 허브를 혼자 두었다. 마크는 허브가 언제나 혼자서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며 지루한 시간을 보내왔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닫게 되었다.

"허브, 너 때문에 늦어지진 않아. 또 천천히 가는 것이 더 좋아. 늦게 간다고 조개 껍질을 못찾지는 않거든" 마크가 말했다.

허브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형 고마와"라고 말했다. 마크는 허브의 목소리가 메이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두 소년이 해변에 이르렀을 때에는 물이 완전히 빠져 있었다. 물에 젖은 모래 위 이곳 저곳에 큰 조개 껍질이 흩어져 있었다. 두 소년이 보드라운 진흙 모래 위를 걸어 가는 동안 마크는 이따금씩 예쁜 조개 껍질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통에 집어 넣었다.

마크의 머리에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이봐 허브야 너도 조개를 찾아 보렴. 너는 저기 있

는 조개 껍질이 쌓여 있는 데서 무릎을 꿇고 앉아 네가 원하는 조개 껍질을 손으로 잡아 보고 찾아낼 수 있잖니?"라고 제의했다.

허브는 "그것 참 좋은 생각이야"라고 기뻐 소리쳤다.

두 소년은 조그만 조개 껍질 더미가 쌓여 있는 곳까지 왔다. 허브는 거기서 무릎을 꿇고 앉아 손으로 조개 껍질을 만져보기 시작했다. 잠깐 사이에 그는 작으마한 펜 조개 껍질과 제법 큰 캘리코 대합 조개 껍질과 그리고 보석 상자라고 불리는 예쁜 조개 껍질을 찾아 냈다.

허브는 갑자기 환성을 질렀다. "야 여기…" 그러다가 그는 갑자기 환성을 멈추었다.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와서 형이 한 번 찾아 봐. 좋은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애"라고 말을 이었다.

마크는 허브에게로 가서 허리를 굽히고는 조개 더미를 살펴 보았다. 조개 껍질들이 전등 불을 받아 반짝거렸다.

마크는 "네가 좋은 것을 모두 찾은 것 같애"라고 잠시 후에 말했다.

"계속 찾아 봐" 허브가 완강하게 마크를 부추겼다. 마크는 허브가 왜 그렇게 그곳에서만 조개 껍질을 찾아 보라고 조르는지 알 수가 없었다. 마크는 나중에 집에 가기 전에 그곳을 한번 더 살펴 보기로 작정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마크의 눈에 조개 껍질 하나가 띄었다. 그것은 그가 그렇게도 찾고자 했던 주노니아 조개 껍질이었다. 마크는 그의 눈을 의심할 정도였다. 조금도 손상이 가지 않은 완전한 형태를 그대로 지닌 것이었다.

마크는 "여기 주노니아를 찾았어"라고 허브에게 소리쳤다.

두 소년이 다시 해변을 따라 걸어 나오는 동안 마크는 방금 전의 일을 생각했다. 허브가 어째서 주노니아 조개 껍질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조개 껍질 더미 맨 위에 있었는데 …그래서 분명히 그가 손으로 잡아 보았을텐데…

집에 돌아왔을 때는 그렇게 구하고 싶었던 주노니아 조개 껍질을 표본 상자에 정돈해 놓는 재미에 조금 전의 일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다. 온 가족이 마크를 축하해 주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허브의 기쁨이 가장 큰 듯이 보였다.

그날 밤 마크는 허브가 그의 어머니에게 "조개 껍질을 얻을 때도 기쁘지만 내가 그 조개 껍질을 직접 찾는 것이 더 재미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을 언뜻 들었다.

마크는 아름다운 주노니아 조개 껍질을 내려다 보면서 주노니아가 거기에 있는 것을 허브가 알았지만 그것을 내가 직접 찾으면 더욱 기뻐할 것을 알고 그대로 두었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아침에 허브가 자기 집으로 떠나려 할 때 마크는 전날 허브와 함께 공부했던 조개에 대한 책을 허브에게 주면서 "이 책을 가지고 가"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에 올 땐 더 재미있게 오랫 동안 조개 껍질을 채집해 보자"

허브의 얼굴은 밝은 빛을 띄었다. "열심히 공부해서 같이 채집할 수 있도록 준비할께"라고 허브가 진심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네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겠어" 마크도 진심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피지에서 있었던 이야기

특별한 간증

아직 돐도 안된 쥴리엣은 위에 심한 통증이 일어나 두 차례의 수술을 받아야 했다.

쥴리엣이 조금 자란 어느 날, 쥴리엣의 체온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어린 쥴리엣을 좀더 편하게 해주려 애를 썼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다. 마침내 어머니는 근처에 있는 선교 본부로 찾아가 딸을 축복해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선교사들은 쥴리엣을 축복하였다. 그들이 몇 시간 후에 쥴리엣의 병세를 보기 위하여 다시 쥴리엣의 집에 들렸을 때, 쥴리엣은 조용하게 잠이 들어 있었다.

쥴리엣은 두 차례나 초등협회 어린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완전히 고치지는 못하였었다. 그러나 신권의 축복은 쥴리엣을 보다 편하게 해주었다.

쥴리엣은 그의 가족에게 교회에 나가자고 졸랐다. 마침내 1968년 3월 쥴리엣 가족은 모두 침례를 받았다. 그들은 교회에서 우정과 행복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특별한 사랑으로 쥴리엣과 그녀의 간증을 기억하고, 쥴리엣이 그들과 다른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교회로 이끌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

훌륭한 모범

제이얀트는 회원이 되기 전부터 교회를 좋아했다. 그는 아저씨에게서 복음 이야기를 즐겨 들었다. 아저씨가 피지에서 최초의 인도 사람으로 교회 회원이 되었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흥미있는 이야기였다.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은 제이얀트는 부모님께 교회에 입교해도 좋으냐고 여쭈었다. 부모님은 허락해 주셨다.

제이얀트는 복음대로 생활하며 훌륭한 모범을 보임으로써 가족에게 선교사로서의 임무를 다하려고 노력했다.

얼마 오래지 않아 제이얀트의 아버지와 형이 침례를 받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직도 주저하였다. 외증조부님이 인도 힌두교의 명성높은 사제였기 때문에 어머니는 몰몬이 된다면 친척으로부터 받게 될 비난이 두려웠던 것이었다. 그러나 아들의 훌륭한 모범으로 어머니도 마침내 교회 회원이 되었다.

현재 제이얀트 가족은 모두 피지, 수바의 지부에서 활동적인 회원으로 봉사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섬김으로써 오는 기쁨과 사랑을 알고 있다.

축복

오리파는 피지섬에 살고 있는 소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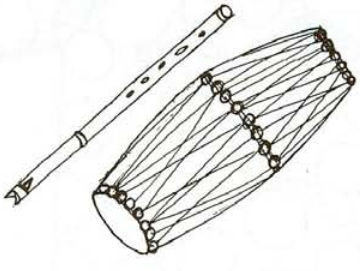
몇년 전에 오리파는 무엇보다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속할 수 있기만을 간절히 원했었다. 오리파의 언니는 교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오리파는 부모님께 침례를 허락해 달라고 간청했으나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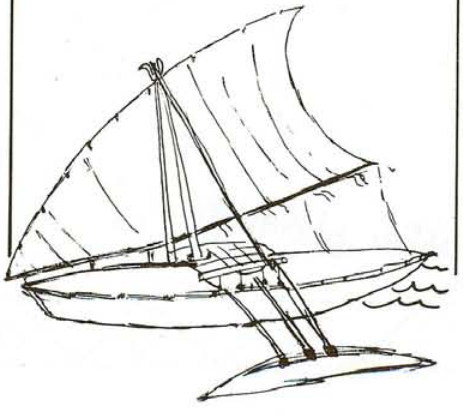
그러나, 마침내 오리파가 10살 되던때 그녀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교회 회원으로 확인될 때 오리파는 너무 기뻐서 행복의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오리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녀를 축복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았다.

오리파는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최선을 다해 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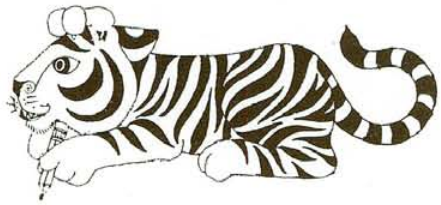
피지 전체의 6학년 학력 검사가 있었다. 여기에서 오리파는 최고 득점자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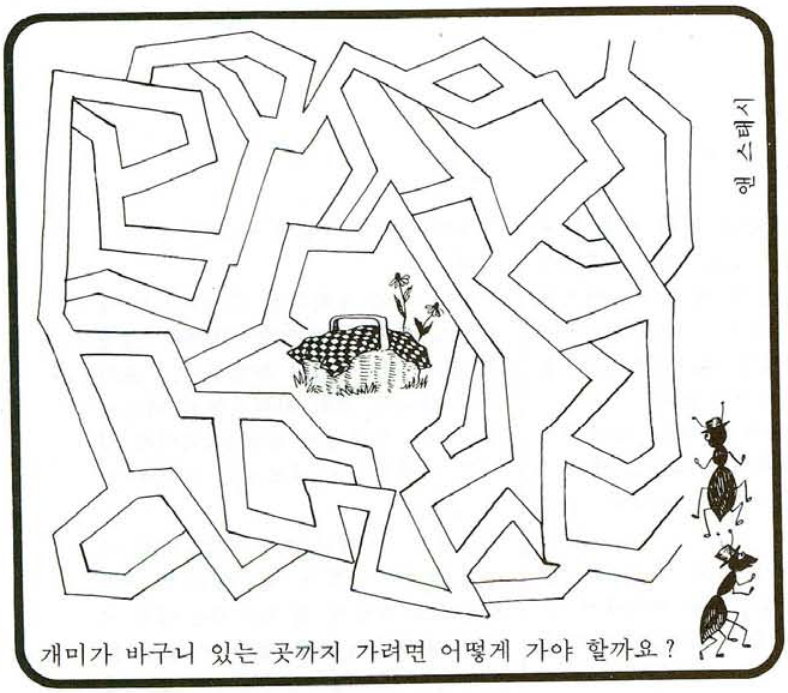
그날 큰 언니가 와서 오리파에게 입을 맞추면서 시험을 잘 치룬 것을 축하해 주었다. 오리파의 부모님이 자랑스럽게 시험에 대해서 묻자, 오리파는 교회의 회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심심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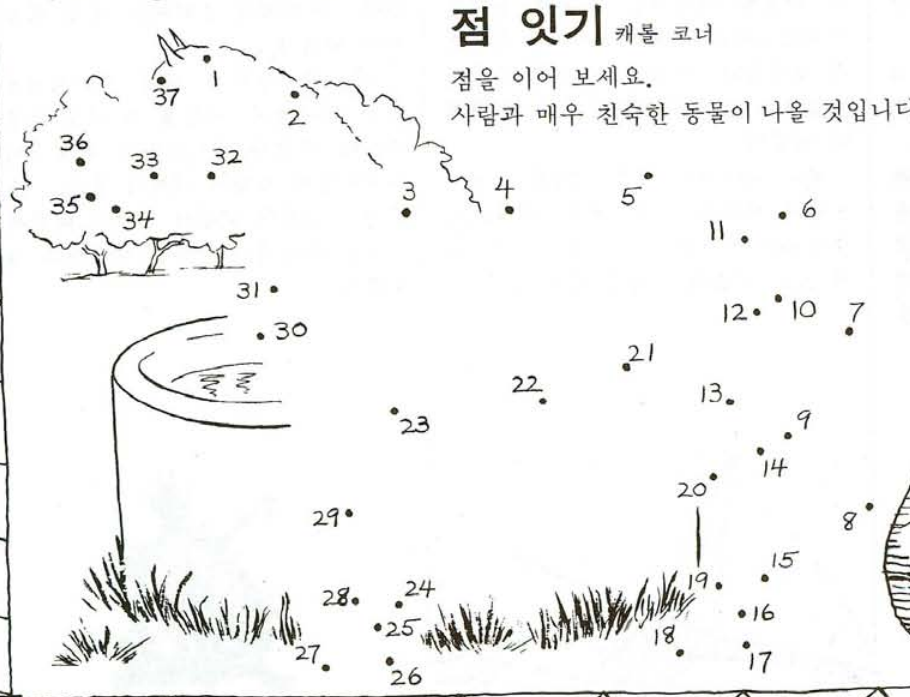


개미가 바구니 있는 곳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할까요?

사람 구경이 이렇게 재미 있는줄 몰랐어

점 잇기 캐롤 코너

점을 이어 보세요.
사람과 매우 친숙한 동물이 나올 것입니다.



리차드 에이치 크래크로프트

음덕을 행하라

선교사 임기를 마칠 무렵이었다. 선교 사업의 마지막 주일이 시작되었고, 나는 스위스 바덴 지부 지부장단에서 해임되었다. 이제 나머지 한 주간을 바젤에 있는 선교 본부에서 보내게 되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생각이 간절했다. 그동안 열심히 훌륭한 선교사로서의 임무를 완수했지만, 가족과 다시 만나게 된다는 큰 기대와 기쁨에 싸여 있었다. 그동안 주님은 우리 가정에 재산, 건강 그리고 힘을 축복해 주셨다. 나는 1951년 아버지께서 갑자기 실명하시게 되자 어머니가 막중한 짐을 계속 지고 가신 것을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아버지는 놀랄 정도로 적응력을 발휘하셔서, 때때로 좌절하시기도 하지만 거의 완전히 원기를 되찾으셨다. 적어도 일반인과 대하실 때는, 예나 다름없는 랄프 크래크로프트였다. 그러나 그는 곧 예전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얼굴에는 세상에 대한 미소가 있었고, 자신감이 돌았으며 그는 전과 같이 교회를 위하여 계속 봉사하였기 때문이었다. 나는 나의 양친을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며, 몹시 만나 뵙고 싶었다.

나는 선교 본부에서 잔 일을 하며, 새로 도착한 선교사 그룹에게 공과를 가르치고 그들의 새로운 임무를 익히게 해주는 일을 하며 마지막 주를 보내기로 되어 있었다.

나는 지금 그들중의 한 젊은이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날 아침 나는 선교 본부 맨 윗층으로 올라가서 그와 접견을 하고 그를 가르치기로 되어 있었다. 우리가 함께 있는 동안 그는 처음에는 선교사로 나오고 싶지 않았다고 고백하였다. 사실 그는 부름을 거부하였었다. 그는 그가 선교사의 임기를 완전히 마칠 수 있을지 오랜 동안 학업을 연기할 수 있을지, 여자 친구를 멀리 두게 하고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한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그에게 암흑의 기간이었다. 이년 이상을 희생해야 한다는 사실과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이 청년은 그를 묶는 줄을 끊고는 싶으나 감히 끊지는 못하고 있었다. 선교 사업이란 보호된 실습장이 아니라 전장이다. 때때로 부상자도 나올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승리는 영화로운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를 이미 경험했던 나는 그를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그에게 어떠한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이곳 스위스 바젤에 선교사로 오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참 이상한 계기였읍니다."라고 그는 회상하며 말했다. 그와 같은 내적인 갈등으로 번민하고, 미래에 대한 회의마저 느끼면서 그는 몇달 전에 친구가 다니는 와드 성찬식에 참석하였다. 실명하여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노인이 강하고 힘찬 음성으로 말씀을 하기 전까지는 이 모임도 다른 모임과는 다를 바가 없었다. 이 사람은 주님께서 어떻게 진리를 깊이 보게 그를 축복하셨으며, 그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였고 모든 사람이 가장 큰 고난이라고 여기는 실명의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말했던 것이다. 이 눈먼 사람은 일생동안 주님을 위해 봉사한 사실과, 주님은 그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다.

이 청년은 그 노인의 이야기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 이 노인이 자기를 크게 움직였다고 청년은 말했다. 청년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주님에게서 가장 귀중한 시력의 은사를 빼앗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증할진대, 내 어찌 주님의 사업을 하려는 연약한 은사마저 움추리겠는가" 그 순간 그는 한 번 거부하였던 부름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는 집에 와서 감독을 찾아가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했던 것이다.

"그 눈먼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내가 물었다.

"모릅니다" 그가 대답했다.

"전 압니다." 나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전 압니다." ■

크래크로프트 박사는 브리감 영 대학 영문학과 조교수로서 미국의 여러 잡지에 기고하였으며, 현재 신권회 교재 편찬 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 프로보 이스트 스테이크, 본네빌 와드 소속인 그는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1974년 10월 4일 금요일 아침 모임

금식의법

이 복음의 원리에 순종할 때
영적이며 물질적인 번영을
이룰 수 있읍니다.

헨리 디 테일러 장로
십이사도 보조

최근에 있었던 한 모임에서 메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님께서는 감명깊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복지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금은 금식 헌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 교회의 바람이요 목적이었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며, 마땅히 해야 하며, 더 잘 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과 함께 롬니 부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은 확신에 찬 말씀으로 격려해 주셨읍니다. "우리가 금식 헌금을 배로 늘인다면 영적인 면에서나 물질적인 면에서 번영을 이룰 수 있읍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약속으로 주셨으며, 기록으로도 남아 있읍니다."

수십년 전에 금식의 법을 지키도록 하루가 제정되었읍니다. 이 법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헌금자가 금식 기금으로 임의로 정한 금액을 낸다는 점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정책은 이렇습니다.

"매달 첫 주일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날로 정해졌으며 이날 특별 간증회를 갖는다. 간증을 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준비한다…

"합당하게 금식 주일을 지킨다 함은 두 끼를 음식이나 음료를 전혀 입에 대지 않은 채 금식 간증회에 참석하며 합당한 금식 헌금을 감독에게 내어 궁휼한 자를 돕게 함을 뜻한다. 금식 헌금은 두끼 분 음식의 상당 금액으로 한다."(교회 지침서 〔1968년〕 32페이지)

그러나 일요일은 교회에서 금식과 간증 모임만을 갖는 날은 아닙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 법과 원리가 시작된 흥미로운 이유를 이렇게 전해 줍니다.

"오늘날 지켜지고 있는 금식과 기도는 초대 교회 때부터 지켜진 것이었읍니다. 교회가 조직되면서부터 기도의 정신이 깃든 이 금식의 원리가 주님의 계명이 되어 왔읍니다. 〔교성 59 : 8-13 ; 88 : 76, 119 참조〕 한 달에 하루를 정한 것에 관해서 우리는 브리감 영 대관장님이 1867년 12월 8일, 솔트레이크시티의 태버나클에서 행한 연설에서 그 의미를 알아 볼 수 있읍니다.

"영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매달 첫 목요일을 금식일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 금식일의 유래를 아시는 분은 얼마나 계십니까? 십일조를 내기 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에 의해 지원을 받았읍니다. 그들은 예언자 요셉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했으며, 그는 금식일을 정해서 그들을 돕기로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그때도 한 달에 한 번 지켜졌으며, 그날 취할 모든 식량인 밀가루, 고기, 버터, 과일 기타 음식을 금식 모임에 가지고 와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을 맡은 사람에게 이것을 바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법을 성실히 지키는 데도 가난한 사람이 밀가루, 버터, 치즈, 고기, 설탕 등이 부족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읍니다. 가난한 사람이 쓰고도 남을 정도로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스미스 대관장님은 또 이렇게 설명하셨읍니다.

"목요일에 금식일을 지키던 관습은 나부 시절과 교회의 성도들이 록키 산계곡으로 이동했을 때까지 계속되었읍니다. 나는 상점이 매 금식일에는 문을 닫고 그 위에다 '금식일 휴업'이라는 글을 써붙인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금식일이 매월 첫 목요일에서 첫 안식일로 바뀌게 된 이유는 아래와 같읍니다. 후일에 십이사도가 되신 하이람 엠 스미스가 1896년 영국 뉴캐슬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었읍니다. 금식일인 목요일에 그 지방 성도

들은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지 않아야 했으며, 그날의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읍니다. 그들 중에는 탄광 노동자들도 많았읍니다. 이들은 갱에서 나오면 집에 가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 입은 다음에야 모임에 올 수 있었읍니다. 금전과 시간의 낭비가 컸읍니다. 하이람은 그의 부친이었던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에게 왜 그러한 상황에서도 금식일을 일요일이 아닌 목요일에 지켜야 하는지를 물었읍니다. 스미스 대관장님은 그 편지를 대관장단과 사도의 모임에 가지고 갔읍니다. 다음은 1896년 11월 5일에 열린 그 회의의 기록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이 금식 모임에 관한 주제를 소개했고 금식일을 매월 첫 목요일에서 첫 안식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의했다. 부대관장인 조지 큐 캐논 형제도 이에 지지의 뜻을 표명하였으며 여러 형제들의 주제에 대한 의견 발표가 있은 다음, 태버나클 예배도 매월 첫 안식일에 갖기로 결정을 보았으며, 모든 성도들은 금식일을 매월 첫 안식일 오후 2시에 그들의 집회소에서 갖게 되었다." (임프르브먼트 이라, 1956년 12월, 895 페이지.)

금식일을 지키는 날짜에 대한 변경이 있은 다음에 또 다른 변화가 있게 되었읍니다. 예언자 요셉이 교회의 초기에 커틀랜드에서 이 프로그램을 제정했을 때 성도들은 금식 모임에 그들이 금식한 음식이나 양식을 가지고 오도록 권고받았었읍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수정되어 현재는 교회의 집사들이 매월 지명된 가정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금식 헌금을 받아 오고 있읍니다.

금식과 간절한 기도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1850년은 후에 교회의 대관장이 되신 로렌조 스노우 형제가 이태리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그 나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던 때였읍니다. 그는 좀 수줍음을 타는 분이었으나 영적으로는 거인이었읍니다. 그는 그곳에서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가진 어느 가족을 알게 되었읍니다. 사실 스노우 장로는 참된 금식과 열렬한 기도와 굽힘없는 신앙과 신권의 권세를 통해서만 그 세 살짜리 어린이가 구원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그는 이 어린이를 구해 주는 것이 이태리의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뜻을 안겨다 주는지도 알고 있었읍니다.

그는 동반자와 함께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알프스 산에 올라 금식과 기도로 주님께 그 어린이를 고쳐 줄 수 있는 거룩한 권세를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장장 여섯 시간이나 간절히 간구했읍니다. 마침내 응답이 왔읍니다. 그 권세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주님의 응답이었읍니다. 그에게 그러한 특권이 허락된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겸손한 종으로 죽어 가는 어린 아이의 생명이 건져질 수 있다는 완전한 신앙을 품고 산을 내려갔읍니다. 소년에게는 그가 살게 된다는 축복과 약속이 주어졌읍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스노우 장로와 그의 동반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그 어린 아이가 급속히 회복되어 가고 있음을 알았읍니다. 스노우 장로는 그의 금식과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에게까지 미치게 되었음을 알았읍니다. 그는 고마와하는 어린이의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위해 이 일을 이루어 주셨읍니다." (에리자 알 스노우 로렌조 스노우 전기, 128-29 페이지 참조)

확실히 금식의 법은 영감받은 프로그램이며, 이를 지킬 때 많은 이로움을 얻게 됩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이렇게 요약하여 말씀하셨읍니다.

"금식이란 말은 스스로 음식을 절제한다는 것을 뜻해 줍니다. 역사가들의 설명에 의하면 금식의 관습이 인류의 역사와도 그 기원을 같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그 기원이야 어떠하든 이 법을 지킬 때 많은 이로움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금식과 관련된 모든 원리는 이것을 지킬 때 첫째로 육신의 건강을 얻게 되고 〔다음으로 자제력, 그 다음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 끝으로〕 영적인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해 줍니다.

"그러나 금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로움은 육신의 욕망을 누르고 개인의 의지에 따름으로써 오는 영적인 힘이라고 하겠읍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복음의 이상, 참조, 임프르브먼트 이라, 1953년, 208-213 페이지)

금식일에 준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의 하나는 반드시 금식 간증회에 참석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많은 축복에 감사를 드리는 일이라 하겠읍니다.

나는 금식일에 지켜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금식이며, 둘째는 기도이며, 세째는 간증이며 끝으로 헌금입니다.

나는 우리가 모두 그외에도 많은 축복을 받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신적인 주님의 종으로서 대관장단의 한 분인 롬니 장로님께서는 우리가 지킬 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공식을 주셨읍니다. 이제 나는 다시 그분의 영감에 찬 약속을 반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금식 헌금을 배로 늘인다면 영적인 면에서나 물질적인 면에서 번영을 이룰 수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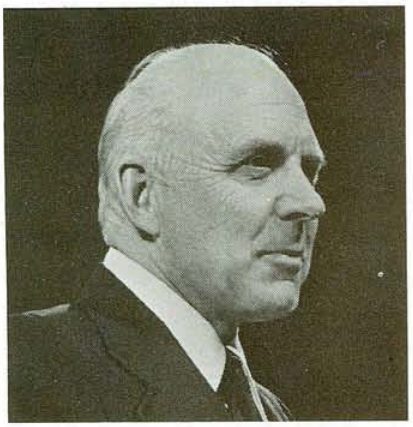
나는 금식 헌금을 낼 때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1974년 10월 5일 토요일 신권회

선교 사업을 위한 준비

우리는 현재 필요한 수의 반도 못되는 선교사로 일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은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에이 데오도르 터틀 회장
칠십인 제일 정원회



젊은이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장래 선교 사업에 관하여 몇 가지를 권고하여 드리고 싶읍니다. 나도 한 때는 여러분과 같은 소년이었읍니다. 여러분에게는 긴 세월처럼 들릴지 모르나 나에게는 짧은 순간이었읍니다. 나는 여러분이 지내온 것과 같은 나날을 빠짐없이 지내 왔고 그 위에 더 많은 세월을 보냈읍니다. 나는 가장이 되었고, 평생을 통해 젊은이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읍니다.

하나님의 예언자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해야 할 때이며 선교 사업을 강조할 때라고 하셨는데, 이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나는 선교 사업에 관해 한 젊은이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전 선교사로 나가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같은 생각이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형제님이 필요합니다."

킴볼 대관장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선교사의 반도 못되는 수로 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선교사로 봉사하기를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선교 사업을 통해서 형제애의 유대가 굳게 다져집니다. 여러분은 매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동반자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국적이나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봉사하는 사람에 대해 사랑을 갖게 됩니다. 그들도 여러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개종자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준 사람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읍니다. 나는 개종자들이 우리 선교사들에 대해 참으로 큰 존경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언제나 여러분의 생활에 깨끗한 영향력을 미치게 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이 진리를 간구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그것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18,000명이 이 일에 종사하고 있읍니다. 19세부터 25세의 연령에 속한 사람으로 이 일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의 수는 약 60,000명에 달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선교 사업입니다. 이일보다 결혼을 먼저 할 수 없읍니다. 여러분이 하는 다른 일을 이것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의 학업도 이 부름을 받는 동안은 중단됩니다. 대학 생활은 학업과 선교 사업을 모두 가능케 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될 수 있읍니다.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도 자기 고장에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 봉사할 수 있읍니다.

여러분의 도덕적인 합당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영적인 힘이 요구되는 이 사업에 무력한 성품의 소유자를 원하지 않읍니다. 공부하십시오! 색연필을 들고 몰몬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성구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선교 사업을 하는 데 또 필요한 도구는 외국어입니다. 우리는 "…여러 나라의 언어와 방언을 통달하며 여러 국민과 친숙"(교성 90 : 15)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과 계속해서 훌륭한 대화를 나누십시오. 이렇게 말한 젊은이가 있었읍니다. "나는 교회를 지나갈 적마다 반드시 발 걸음을 멈추고 들어가 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 관에 뉘여 있을 때 주님께서 '저게 누구지?'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젊은이들은 선교사건 아니건 쉽게 배가 고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지만 선교사의 경우는 더욱 그렇읍니다. 계란이나 국수 요리같이 쉬운 요리를 만드는 법을 익히십시오.

접시 닦는 법이나 단추 다는 법을 배워 두십시오. 이것은 여자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선교 사업을 할 때에는 그같은 일을 따로 해 줄 사람이 없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다면 동반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분의 어머니를 그곳에 보내지도 않을 것입니다.

선교사 숙소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읍니다. 여러분이 일찍 일어나서 침구를 정돈하고 걸 것을 걸고, 개킬 것은 개키며 쓰레기는 제때 버리는 습관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러한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그렇지만 여유를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어머님이 놀라실 것입니다. 구두를 닦으십시오. 양복을 다려 입으십시오. 빨래하는 일, 풀먹이는 일, 다림질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유행은 쉽게 왔다가는 곧 사라집니다. 다행히 히피 타입의 유행이 사라져가고 있읍니다. 여러분의 복장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교회에서 정한 두발이나 복장의 표준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머리를 좀 더 짧게 깎는다면 후에 갑자기 깎게 될 때 당황해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외모를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서 여러분의 취향을 전혀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러 갈 때는 가장 깨끗하고 좋으며 아끼는 옷으로 갈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이 점에 모범을 보이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 훌륭한 무언의 설교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선교 사업을 행하게 될까요? 대개는 먼 이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을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의 부친이 계셨던 지역을 원할 것입니다. 그것도 당연한 일이지요. 우리 교회에는 부친이 선교 사업을 했던 곳이 가장 좋은 선교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도 있읍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 옛 선교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아버님의 모습을 눈여겨 보았읍니까? 여러분은 아버지께서 옛 선교사 시절을 회상하실 때마다, 그때를 그리워하며 밝고 환한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아 내는 것을 볼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름다왔던 선교 시절의 추억에 젖어 훈훈한 느낌을 만끽할 수 있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보다 먼저 나간 사람들처럼 부름받은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젊은이 여러분, 선교사로 봉사하는 데는 매월 130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로 나가실 때가 비용이 더 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선교 사업을 마치는 데는 3천내지 4천불이 든다는 뜻입니다. 충분한 기금을 모으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는 기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찍부터 이 기금을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상의하십시오. 부업을 택해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저축하십시오. 많은 소년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지냅니다. 선교사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기 적금을 드십시오. 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선교사 기금으로 자전거나 전축이나 스쿠터 등을 사고 나중에 그것을 팔아 다시 선교사 기금을 충당할 수 있다고 그같은 일을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자제심과 목적있는 저축만이 큰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읍니다. 모든 준비를 다 갖춘 다음에는 감독님을 찾아 가야 합니다. 훌륭한 조언을 해주실 것입니다.

선교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두 살을 더먹게 됩니다. 오늘밤 여러분께서는 그것이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동안 여러분의 생활에 큰 변화가 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연애와 결혼을 뒤로 미루는 것은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선교사 생활을 마친 후에 다른 자매와 사귈 수도 있읍니다. 많은 사람이 서로 생각해 보아서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이 꼭 행복하고 성공적인 결혼을 보장한다고 할 수 없으나 여러분의 생활에 큰 안정을 가져다 주며 이것이 여러분의 결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선교 지역에서 성인으로 성장한 사람은 보다 훌륭한 결혼 상대자를 아내로 맞게 됩니다.

이제 젊은이 여러분께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교 사업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 소녀나 선교 사업을 비웃고 조롱하는 소녀를 경계하십시오. 영생의 동반자로 삼을 소녀가 혹시 이런 사람은 아닙니까? 그러한 소녀와는 끝을 맺는 편이 낫읍니다.

여러분은 간증을 얻고 이를 전하기에 충분한 나이입니다. 어느 스테이크 대회에서 우리는 한 젊은 자매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었읍니다. 그녀는 구모라 언덕 행사에 참석하고 돌아온 자매였읍니다. 그녀는 열렬한 간증을 전하였읍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13세된 게리라는 형제를 불렀읍니다. 그는 자기의 이름이 호명되자 약간 당황해 했읍니다. 키가 큰 게리 형제가 연단에 올라 왔읍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시작했읍니다. "전 왜 부장님이 부르셨는지 모르겠읍니다. 저에겐 간증도 없읍니다."(소녀가 전한 간증에 관해서 자신을 비교해 본듯함) 그는 몇 분동안 세미너리에 관해서 말했고, 그의 가족에게 감사한다고 말하고 "나는 복음이 진실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하고 말을 마쳤읍니다. 간증이란 성신의 은사와 권세로 오게 됩니다. 우리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간증을 하십시오. 간증을 얻기를 원하고 노력한다면 이것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수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의 간증을 전할 기회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요셉은 예언자였고, 이 교회는 살아 계신 예언자를 가진 참된 교회라는 사실을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읍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중에는 축구팀 주장이나 졸업생 대표, 학생 회장이 아닌 분이 많읍니다. 사교적인 면에서도 자신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읍니다. 여러분의 성적이 좋지 않을 수도 있읍니다. 여러분 중에는 자신이 선교사로 나가 봉사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굳게 마음속

에 간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든지 생명에 이르든지 인간의 원대로 허락하시며"(앨 29 : 4) 나는 이 약속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원하는 모든 특성을 다 지니시지 못할 수도 있읍니다. 여러분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실수를 범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또 좋지 못한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오늘 밤 주님께 이야기하십시오. 심히 괴로움을 받으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감독님을 찾아 갈 필요도 있읍니다. 지금 문제를 정리하고 해결하십시오.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선교사는 겸손한 사람이었읍니다. 정직하게 일하며, 주님과 가까이 살며, 그를 의지하는 사람이었읍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의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수 있읍니다. 오늘밤에 결정을 내리십시오.

개종자와 함께 침례탕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위임을 받아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그대를 침례하노라."(교성 20 : 73)

여러분은 승리의 1점을 따낼 수 있고, 홈런을 칠 수도 있으며, 상대를 완봉하는 투수도 될 수 있읍니다. 여러분은 많은 일을 함으로써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읍니다. 여러분은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새로운 느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브라운 형제 부부와 자녀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모두 훌륭한 가족이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압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압니다. 나는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였다는 사실을 압니다. 나는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이 오늘날 지상에 살아 계신 예언자라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8월 한국 대회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읍니까?

1974년 10월 4일 금요일 아침 모임

우리의 귀한 가족

부모는 가족의 유대를 강화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로렌 시 던 회장
칠십인 제일 정원회

솔트레이크 태버나클 합창단이 아름다운 노래로 화평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대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계신 예언자로부터 지시와 가르침을 받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킴볼 대관장님이 하나님의 예언자이

며, 그는 오늘날 지상에 계신 주님의 합법적인 대행자이시며, 그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과 충고를 따르는 사람은 실생활을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참되며, 인류를 굳건히 하고 고양하기 위해 필요한 말씀이란 사실을 알게 된다고 간증드리는 바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나는 오늘 말씀의 주제로 일전에 킴볼 대관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다시 말씀의 주제로 삼으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국가는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가정은 가족 위에 기초를 두고 있읍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가 있는 가정은 인류가 이룬 제도 중 가장 오래된 것이며, 문명의 기초를 이루고 있읍니다.

가족보다 더 값지고 영원한 조직이 없읍니다. 그러나 가족 관계에서 부모의 역할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읍니다.

나는 몇년전에 어떤 일로 사업계와 지역 사회의 저명 인사들과 함께 동부 캐나다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읍니다. 그 날 일을 마치고 우리는 함께 식사를 들었읍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서로 더욱 친숙해졌읍니다. 그 날 저녁 사교 모임에서 누군가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가 매우 사랑한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읍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아들과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으며, 그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라 걱정하고 있었읍니다. 그같은 이야기가 있자 옆에 앉았던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읍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이야기는 그런 사람들이 잘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을 아실테지만 이들은 모두가 자기의 가정 생활에 정신을 쓰고 있었으며,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 문제를 갖고 있었읍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나는 부모라면 누구라도 시대를 초월하여 자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걱정하고 있다고 믿읍니다. 가족이 사회를 이루는 기본 단위라면 기본되는 원리를 재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부모는 자녀의 태도나 행동을 이끌어 줄 권리와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일의 원리와 원한다면 윤리까지도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 이외에 어느 곳에서 일의 존엄성을 배울 수 있겠읍니까?

세째, 부모는 가정에 도덕적이고도 영적인 기풍을 확립하여 각 가족이 성취감과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도구로서 신성한 원리대로 살아 가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해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첫째가 자녀의 태도나 행동을 이끌어 줄 부모의 권리라고 하겠읍니다. 근본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가 되고…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창 18 : 18-19) 하였다고 말씀하셨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성실하게 자녀를 가르쳤기 때문에 무수한 후손을 보게 하셨읍니다.

세상에는 그와 같은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에게서 자유를 빼앗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사실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소녀들이 모여서 다른 한 친구의 부모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읍니다. 나이에 비해서 성숙해 보이는 한 소녀가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애의 부모는 그 애를 사랑하지 않아 그 애가 무엇을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거든" 다른 소녀들도 이 말에 동의하였읍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발췌되어 실린 뉴욕 타임즈 기사에서 윌리암 비 샤논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읍니다.

"미국의 어린이들은 부모가 부모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 큰 희생을 당하고 있다. 많은 가장이나 어머니가 언어와 행동을 통해 그들이 확신의 결여로 무력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노출하고 있다. 많은 부모는 그들의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들도 가치관을 위해서는 훈련을 쌓아야 한다는 신념이 결여되어 있다…"

저자는 결여되어 있는 점이 아동 발달에 관련된 제반 지식이 아니라 확신이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아동 발달에 유전적인 요소가 큰 역할을 한다고도 하지만 보다 큰 영향력은 "부모가 자녀에게 충분히 관심을 보여 그들 스스로가 필요한 가치에 대해 주장하거나 변호할 수 있게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또한 그는 부모가 가정과 가족에 대한 책임을 제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자녀를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가 맡아야 할 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확신에 따라 자녀를 교육시키지 못하는 부모는 그들이 스스로 발전하도록 자유롭게 놔두는 부모가 아니라 오히려 자녀 교육의 책임을 다른 어린이나 텔레비전과 영화와 같은 수단"에 맡겨버리고 마는 부모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윌리암 비 샤논, "우리는 자녀에게 어떠한 가치관을 가르칠 수 있나?", 리더스 다이제스트, 1972년 5월, 187-88페이지)

가족 관계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원리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사랑을 지니고 이끌고 지도하고, 참아 나간다면 자녀들도 그것을 생활의 원리로 삼을 것입니다. 사랑의 원리는 자녀를 키우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부모의 과오를 극복해 줄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이 신념의 결핍과 혼동되어서는 안됩니다.

둘째, 일의 원리가 가족과 가정의 테두리 내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신적인 압박과 긴장의 문제는 평균 노동 시간의 감축과 다소 연관이 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읍니다. 즉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자유 시간이 각 개인에게 긴장과 스트레스를 일으켜 주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께서는 우리 형제에게 일의 원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읍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라나신 그 마을의 한쪽 끝에 있는 작은 농장에서 우리에게 일을 하게 하셨읍니다. 아버지는 지방 신문사를 경영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른 아침과 저녁 이외에는 우리와 함께 할 시간이 없었읍니다. 우리 두 젊은 형제에게는 힘겨운 일이 많았으며 우리는 가끔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읍니다.

우리 농장은 다른 사람의 농장가운데 있었는데, 하루는 옆의 농장 사람이 우리가 일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러 찾아왔었읍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읍니다. "짐, 고마와요. 하지만 난 소를 키우는 게 아니라 아늘 놈들을 키우고 있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후에 그분이 우리에게 그의 이야기를 들려 주었읍니다.

소를 키우는 게 아니라 자식들을 키우기로 결정하신 아버지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잘못을 범하기도 했었지만 그 작은 농장에서 일하는 법을 배웠으며, 나는 부모님이 자주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소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귀중한 존재였다는 것을 언제나 알고 있었읍니다.

어느 가정에서나 모든 가족이 자기의 능력의 한도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일에 대한 책임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이것을 통해 일에 대한 만족감과 일의 존엄성을 배울 수 있읍니다.

세 번째는 부모가 자녀에게 도덕적이며 영적인 원리를 가르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에 관해서 현대의 경전을 통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인용할 수 있읍니다.

"또 시온 또는 조직된 시온의 스테이크 안에 자녀를 가진 양친이 있으면 그 자녀의 나이 여덟이 되었을 때 회개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느니라"(교리와 성약 성약 68 : 25)

제랄드 포드 미대통령은 의회에서 행한 첫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진리를 천명하였읍니다.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복잡한 사회에서 전 세기에 걸쳐 전해 오는 도덕과 윤리의 지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경찰이나 법집행자들이 지금까지 막아 온 것 보다도 더 많은 범죄와 부정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 일입니다."(크리스챤 사이언스 모니터지, 1974년 8월 28일)

앞서 언급된 기사에서도 샤논씨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어떠한 힘도 성서 시대부터 인류가 쌓아 온 도덕적인 지혜를 무너뜨릴 수 없읍니다. 살인하고 도적질하며 거짓말하고 남의 소유를 탐하는 일을 자행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재앙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너희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은 낡아빠진 말처럼 들릴지 모르나 '남의 가정에 파탄을 일으키지 말라'는 말을 재확인해 주며, 아직까지도 호소력있는 메시지로 전해집니다.

그는 또한 극기와 예방의 미덕을 지적하고 있읍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에 눈을 뜨게 될 때 자제력을 발휘하는 일이 결코 해롭지 않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어느 정도의 좌절감과 긴장은 인내로써 견디어 낼 수 있으며, 이렇게 할 때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현대의 미국인들은 좌절감을 인간이 받는 고난의 크기로 볼 때 콜레라보다 더 무서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그들은 지적하고 있읍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1972년 5월, 189-90페이지)

이상의 세 가지 원리는 가정과 가족 관계에서 강조되어야 할 많은 원리 중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가 이러한 일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교회의 회원들에게 가정에서 교육과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은 가정의 밤 시간입니다. 월요일 저녁은 가정의 밤으로 정해져 있어 다른 어떤 일로도 방해받지 않읍니다. 아버지가 이끌어 가나 다른 가족이 준비하고 참여합니다. 가족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것을 행하고 배울 수 있읍니다. 교회는 부모가 자녀에게 도덕적이며 종교적인 원리를 가르치고 이것을 생활에 적용하도록 도울 지침을 책자로 출판하여 보급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가정에서 갖고자 하는 비회원 부모에게 교회는 특별한 도움을 주고 있읍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가정의 밤을 갖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훈련된 선교사가 있읍니다. 그들은 아무 보수도 받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의 밤에 참석해서 배울 수 있읍니다. 이것이 모든 가정에 제공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봉사입니다. 우리가 부탁드리는 것은 가장이 이 프로그램의 열쇠를 가진 분이므로 꼭 참석하여야 함은 물론, 전 가족이 함께 참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의 젊은 선교사들은 다음번에 초청된 가정을 방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교회 밖에서도 많은 사람이 가족과 가정을 위해 이 프로그램이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알아 채택하고 있읍니다.

가정의 밤 프로그램을 보고 이를 사원들에게 권장하고 있는 기업주도 있읍니다. 가정에서 일이 순조로와지면 일의 능률도 올라 갑니다.

주님께서 부모인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자녀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며, 일의 존엄성을 가르치며, 가정에 도덕적이며 종교적인 원리를 확립시켜 주는 책임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구합니다. 아멘.

1974년 10월 4일 금요일 오후 모임

믿음의 싸움에 용감하라

예수를 증거하는 데 용감하다는 것은
모든 복음의 율법에 순종한다는 뜻임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목표를 주었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전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디모데전서 6 : 11-12)

오늘날의 사도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으면서 그를 섬기고 그의 계명을 지키기로 성약하고, 그리스도의 짐을 스스로 짊어진 사람들에게 그같이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진리와 의의 대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용감하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진실하십시오. 계명을 지키십시오. 세상적인 일들을 극복하십시오.

바울은 자기 자신과 그가 싸워 이긴 세상과의 큰 싸움에 관해 이렇게 말했읍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 : 7-8)

우리는 교회의 회원으로서 대 전쟁에 참여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루시퍼와 모든 세상적이고 육욕적이며 사악한 것들과 싸우고 있읍니다. 우리는 친구 옆에 서서 적과 싸우기로 결심하였으므로, 적과 벗을 구별하는 데 혼동을 빚어서는 안되겠읍니다. 고대의 또 다른 사도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약 4 : 4)

사면에서 공격해 오며 불행하게도 많은 사상자를 내는 대전쟁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도 악의 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파괴하려고 하고, 루시퍼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진보와 발전의 길에서 우리를 몰아내려던 전쟁은 있었읍니다.

그러한 전쟁은 지금 이 지상에서도 진행되고 있으며, 악마는 지금도 교회에 대항하며, 분노를 품고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계 12 : 17) 나서고 있읍니다.

과거에 그래왔던 것처럼 지금도 변함이 없읍니다.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계 12 : 11) 사탄과 그의 무리를 이겨낼 수 있읍니다.

이 전쟁에서 중립이란 있을 수 없읍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은 양편 중 한쪽을 택해야 합니다.

이 전쟁에서 싸우는 군인은 바울의 편에 서서 승리를 거두어 의의 왕관을 쓰든가, 아니면 바울의 말대로 주님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주시려 올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데후 1 : 8, 9)

이 전쟁에서 용감하고 담대하게 나서지 못한 자들은 그러한 이유 하나만으로도 적을 위해 협조한 자가 됩니다.

"나를 따르는 자가 아니면 필경 나를 거역하는 자라…우리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니이 10 : 16)

우리는 교회의 편에 서거나, 아니면 교회에 반대하는 편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능동적으로 역할을 맡아 나가거나, 아니면 피동적인 태도로 나가 그 결과를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쪽 다리는 교회에, 다른 한쪽은 세상에 설 수는 없읍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교회와 세상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중립이란 있을 수 없읍니다.

주님께서는 당당하게 싸우는 용감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교회에 속했던 회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읍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

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요한계시록 3 : 15-16) 양호한 상황 아래서만 용감할 수 있는 사람은 전쟁이 치열해지면 모두 퇴각하고 맙니다. 그들은 승리의 면류관을 쓰지 못합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정복당하고 맙니다.

간증을 가지고 있고 순결하고 의롭게 사는 교회 회원이라도 용감하지 못하면 해의 왕국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별의 영광에 머물게 됩니다. 이들에 관해 계시는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이들은 예수에 대한 간증이 강렬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릴 면류관을 얻지 못하느니라" (교성 76 : 79)

예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눅 9 : 62)고 하셨읍니다.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용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우리 주의 증거를… 부끄러워 말고…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딤후 1 : 8)고 하였읍니다. 요한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읍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계 19 : 10)

주님에 대한 간증! 예수에 대한 간증! 이 얼마나 영화롭고 기이한 개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독생자와 함께 영원히 영화롭게 살 수 있는 문을 열어 줍니다. 예수에 대한 간증이란 곧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그는 아담의 범법으로 인해 우리에게 오는 영육의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온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예수께서는 목숨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셨읍니다. 그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읍니다. (딤후 1 : 10 참조)그는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요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딤전 2 : 5)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읍니다. 이러한 값진 은사는 그의 이름을 통해서만 올 수 있읍니다. 그가 없었다면 부활도 없을 것이며 모든 사람이 영원히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가 없이는 영생도 없으며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면전으로 되돌아 갈 수도 없으며, 성도들이 해의 왕국에 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입이 있어도 다 말할 수 없으며, 다 생각할 수 조차도 없읍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계 5 : 12)

우리는 충만하고 영원한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과 인류를 위해 보이신 구원의 자비심에 대한 온전한 간증을 가질 수 없읍니다. 복음에 대한 간증은 성신을 통해 계시로 오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에게 말을 할 때 우리는 밝혀진 메시지의 진실됨을 확신하게 됩니다.

간증이란 계시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요셉 스미스와 그의 후계자가 오늘날 우리들의 구원과 스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나타내 주는 분이라는 사실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이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임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간증이란 예언의 영입니다. 간증이란 영의 은사입니다. 간증은 성실한 교회 회원에게만 주어집니다. 끊임없이 성신을 동반자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간증을 얻을 수 있읍니다.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민 11 : 29)는 모세의 기도가 성취되어 인간을 예언자로 성별하는 영적인 은사가 바로 간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에 대한 간증을 전함에 용감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아시겠읍니까?

세상적인 일과 싸우기 위해서는 용감해야 하며 우리의 온갖 힘과 정력과 능력을 다 발휘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고 명하시고, 이러한 힘과 용기는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이행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셨읍니다. (수 1 : 6-9 참조) 의의 대업에서 용기의 초석이 되는 것은 모든 복음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데 용감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며…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부인하고…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모로 10 : 32 참조)

예수를 증거하는 데 용감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믿는 것이며, 지상에서 행해지는 주님의 사업의 참됨과 신성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믿고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읍니다. 우리는 듣고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말로만 봉사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간증이란 구세주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과 준행과 개인적인 의로움이 뒤따라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 : 21)

예수를 증거하는 데 용감하다는 것

은 "온전한 희망의 밝은 빛을 품고,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며,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니이 31 : 20 참조) 그것은 종교를 생활화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바를 실천에 옮기며,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에 "정결한 경건"을 나타내 보이며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약 1 : 27 참조)

예수를 증거하는 데에 용감하다는 것은 우리의 열정과 기호를 억제하고 세상적이며 속된 것에서 분연히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가장 용감하였고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적인 것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하며, 십일조와 헌금을 바쳐야 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하며, 부름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다 바쳐 희생해야 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데 용감하다는 것은 매사에 주님의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결정하실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주님이 그러한 상황에서 생각하실 바를 생각해야 하며, 그가 믿는 바를 믿어야 하며, 그가 말하실 바를 말해야 하며, 행하실 바를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그가 아버지와 하나였던 것처럼 그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리는 분명합니다. 때로는 적용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읍니다. 때때로 혼자서 자신을 반성해 보는 일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물어볼 수 있읍니다.

내 인생의 주요 관심사가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일이라기 보다는 지상에 재물을 쌓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를 담대히 증거한다고 할 수 있을까?

실제로 필요한 이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잉여분으로 선교 사업이나 신전 건립이나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을 보조하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를 담대히 증거한다고 할 수 있을까?

교회나 교리에 임하는 나의 태도가 매우 지적이나, 개인적이고 영적인 경험을 얻는 일보다 교리의 이것 저것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데에 관심이 더 있다면 과연 예수를 증거하는 데 용감하다고 할 수 있을까?

누가 신권을 받을 수 있고 누가 신권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이러한 교리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시가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용감한 사람일까?

보오트를 즐기며, 시골에 별장을 가지고 있으며, 영적인 책임에서 나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 주말의 오락 활동에만 정신을 몰두한다면 과연 나는 용감한 사람일까?

도박, 카드 놀이, 외설 영화 감상 주일날 상 행위, 저속한 복장 착용, 기타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생활 방식을 따른다면 용감하다고 할 수 있을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의 일을 첫째로 놓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암흑을 헤쳐 나왔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밝은 빛 안에 있읍니다. 우리는 빛을 받으며 걸어야 합니다.

나는 미래를 점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나 이 세상의 상태가 좋게 개선될 것 같지 않은 느낌을 강하게 받읍니다. 이 세상의 종말에 가서 인자가 오시고 모든 악한 것이 멸망될 때까지 사태는 더욱 더 악화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이 점점 악화일로를 걸으나 적어도 교회의 성실한 사람들은 더욱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굳건히 서며, 교회의 가르침과 원리를 고수하며,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게 한 사도나 예언자의 권고를 택하지 않으면 안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될 때가 곧 오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읍니다. 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그의 손길이 이 사업을 인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읍니다.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권세이며, 우리가 영원히 복음을 생활화한다면 이 세상에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으며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가르치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영원한 진리의 원리를 가르쳐 왔읍니다. 성령의 권세로 가르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전한 복음이 참되며,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지키며 살아 간다면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주실 모든 축복이 그들에게 내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빠짐없이 간증드립니다.

나는 이미 선포된 교리가 참되며, 예수가 주님이시며, 구원은 그를 통하여 오게 되며, 우리는 오직 그의 이름을 통해서만 하나님 왕국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님이 "주님의 편"이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의 군대에 속해 용감하게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력과 결단력을 주셨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질의응답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십이사도 보조
멜기세덱 신권 상이회 책임자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읍니다. 다음 세상에서 결혼할 기회가 있는지요?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독신 여성으로서 신앙이 깊었던 여성도 승영하게 된다는 확신을 수차 피력하셨읍니다. 승영을 얻으려면 의식과 인봉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성실한 독신 여성의 경우도 물론 다음 세상에서 합당한 신권 소유자를 만나 인봉이 되고 결혼의 모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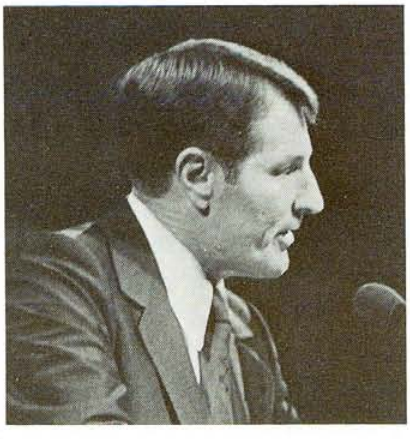
우리의 사회는 관습적으로 남성이 결혼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청혼에 관해 볼것 같으면 여성은 남성에게 결혼을 제의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제의를 수락하거나 또는 거절하는 어려운 위치에 있읍니다.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여성이 받아들이기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느껴 청혼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주님으로부터 정죄를 받는 일은 없읍니다. …마음속으로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느끼고 합당한 때가 이르면 주님의 신전에서 이러한 의식과 인봉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며,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요 바람이요 믿음이라면,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주님께서 이 일을 가능케 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상에서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될때는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며, 여러분이 할 수 없었던 일로 여러분을 정죄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의 교리〔북크래프트사, 1955년 2 : 77)

1974년 10월 4일 금요일 아침 모임

왜 지금 할 수 없읍니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일 때, "아직은"이라는 말은 "결코 안된다" 라는 말과 통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오늘 중요한 사람들로 구성된 특수한 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들은 언젠가는 그리스도를 믿거나 교회에서 활동하게 될 소질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렇지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 개개인은 성품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단지 자신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교회에 접근은 하지만 완전히 참여하지는 않읍니다. 이들은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려고는 하지 않으나 현관을 떠나지도 않읍니다. 이러한 사람은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러한 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간단한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읍니다. 정말로 그러한 분과 함께 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과 그들의 남다른 특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려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마음을 굳게 다져 먹어야 할 이유가 있으니, 시간과 날과 달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다짐한 결의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혹성에서 곧 일어날 일은 미지근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선택의 여지조차 주지 않게 되니, 이는 예수께서 제시하신 문제는 인간으로는 억제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이제라도 마음을 굳게 다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다음과 같은 경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쾌락 추구자들의 눈을 깊이 들여다 보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 본다면 몸에서 풍기는 슬픔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며, 방탕한 웃음 속에서 가식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의 동기를 깊이 살피지 마십시오. 그들도 무엇이 의심스러운가 조차도 알지 분명히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사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며, 결국 그와 그의 사랑을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에 깊이 끌려 들어 가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가르치는 일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기독교에 대한 여러분의 무관심한 태도가 자녀들에게는 적의를 안겨 줄 수도 있읍니다. 여러분이 변호하지 않는 일을 자녀들이 화를 내며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알코홀을 삼가하는 것과 같은 복음의 표준의 실천 가능성을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신다면 알코홀을 삼가하는 것이 알코홀 중독의 예방적이고도 구제적인 유일한 방법임을 입증해 주는 수많은 통계 자료가 밀려 닥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예방적인 원리를 한 가지 실천하는 것이 수천 가지의 사후 정부 보조 프로그램보다 낫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과 같은 교리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신경을 쓰게 되면 부모가 있는 고아들로 가득찬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이를 갈게 될 현실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교리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몰몬경을 깊이 읽지 마십시오. 만약 읽게 되신다면 이 책이 성스러운 천년의 역사를 놀라우리만치 중요한 기사로 가득차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너무 많은 점을 지고 갈 생각을 마십시오. 해의 왕국의 관습으로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영원한 짐만을 운반할 수 있읍니다.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하면 사랑이 많으시고 귀담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 살아 계신 예언자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일반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생각하십시오. 다른 예언자들이 그들의 말이나 행동을 제외하고는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평범한 어부나 천막 제조자였다는 점을 잊으십시오. 한 사람의 결의의 촛불을 끄는 시련의 바람이 이 특별한 사람의 신앙의 불을 더욱 붙여 주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이며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폭풍 주의보에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계명을 지키는 일과 사회 복리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될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신 가장 성스러운 분이 말씀하신 의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분이 자신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를 허락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서 경전을 상고하지 마십시오. 개개인이 아무리 선하더라도 악을 대항하기에는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상에 사셨던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이 대속을 통해 교회를 조직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까지 화가 나있었다면 내가 말한 것으로 화가 난 일을 잊으십시오. 여러분은 내가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기 오래 전에 이야기를 들었어야 합니다.

자신의 참 모습보다도 훌륭한 체하는 교회 회원의 위선에 대해 정직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또 다른 형태의 위선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니, 곧 자신의 참 모습보다 훨씬 못하다고 자신을 생각하는 위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관해서 결정을 내리기를 미루고 싶으시면 이와 같은 것들을 모두 주십시오.

그러나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내년에 택하라고 하지 않았읍니다. 그는 아직 햇빛이 있고 암흑이 다가오기 이전인 "오늘"을 말했읍니다. (수 24 : 15 참조)

예수님이 그의 첫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들은 "곧" 배와 그물을 버리고 그를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읍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고깃철에 고기를 낚고난 후에 그를 따르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읍니다. 그들은 고기를 한 번 더 낚기 위해서 그들의 대답을 늦추지도 않았읍니다. 그들은 "곧" 그를 따랐읍니다. (마 4 : 20 참조)

형제 자매 여러분, 마음이 믿음으로 변하도록 행동하십시오. 일단 믿겠다는 욕망이 있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 현관을 떠나 예배당으로 들어 가면 그런 사람은 분명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의 분위기에 젖어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지금 행동에 옮겨, 천년이 지난 후 이 순간을 돌이켜 볼 때 이 순간이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지금까지 자신과 시간을 무용하게 써버렸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과오를 범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게 해주는 자만심에 크게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쉬운 때가 앞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치욕으로부터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인간을 섬기는 일에 보다 깨끗한 사람과 큰 능력을 갖게 되도록 해주는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에 얽매어 있는 마음은 우리가 제일 먼저 깨뜨려 버려야 할 마음입니다.

참으로 인간이 자기 자신과 할 수 있는 게임 중 가장 중요한 게임은 죄를 완전히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지어보고 싶은 "아직은 아니지"란 게임입니다. 박수 갈채를 외면당하기 전에 조금 더 세상의 찬사를 듣고, 한 번 더 횡재를 잡아 보며,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순결해지기를 바라며,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좋은 이웃이 되고자 하는 게임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상태를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으나 조용히 생각해 보고 갑자기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막 3 : 24)라고 외치게 되는 특별한 순간을 맛보게도 됩니다.

"아직은"이란 말은 "결코 아니다"란 말과 통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빌라도는 그리스도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책임을 거부하려 했으나 그의 손은 물에 씻어도 깨끗해질 수 없읍니다.

우리들의 과거는 현재로서는 아무런 융통성을 기할 수 없읍니다. 우리는 "거룩한 현재"라고 불리우는 시점에 온갖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는 현재가 성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미래의 시점에 살고 있지 않읍니다. 인생의 성스러운 순사는 항상 현재의 형태를 취하고 있읍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깊이 매달렸을 때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들을 지금 당장 버리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혼란을 모두 벗어나면 화평의 종교나 편안한 에덴 동산이 약속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읍니다. 우리에게는 눈물과 시련과 고생이 약속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마음을 진동시키는 최후의 승리가 또한 약속되었읍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도에 서서 "저리로 가시오"라고 말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앞에서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지도자가 보여 준 발자취가 있읍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발걸음의 폭을 넓히는 방법까지를 보여 주는 예언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마당이나 현관에 있는 사람에게 "누구를 위하여(교회)종이 울리나?"라고 묻지 마십시오. "그 종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 울립니다."(존 돈, 위기에 처해서, 명상집 XVII)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고백할 날이 온다고 느끼신다면 왜 지금은 그렇게 느낄 수 없읍니까? 모두가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될 때,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남다른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러한 날을 재촉하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1974년 10월 6일 일요일 아침 모임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에 대한 탐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큰 일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솔트레이크 바로 지금은 초기의 개척자들이 서부의 산간 계곡에 세운 웅대한 역사적인 태버나클에서 교회의 연차 대회가 열리는 때입니다. 바로 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세계 여러 곳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였읍니다.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을 뵙게 된 것은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읍니다. 머리에 쓰는 수화기를 사용하여 모국어로 모임의 진행을 듣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영어로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말이 동시에 통역되어 전달되므로 이해에 아무런 지장이 없읍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수개국어로 동시 통역이 불가능했었으며, 세계 각국에서 몇 시간으로는 이곳에 올 수도 없었읍니다. 우리는 다만 현대 문명의 이기와 과학의 진보에 감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인간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으며 지상의 모든 것과 자연의 힘을 지배하기에 이르렀읍니다.

과학의 급진적인 발전과 현대 문명의 이기가 실용되고는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자연의 법칙인 하나님의 법칙을 적용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수많은 현대 과학 문명이 우리에게는 매우 놀랍게 보이며, 심지어는 신구약성서에 나오는 많은 기적의 경이를 능가하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이 현대 문명의 이기는 기적처럼 보이나 곧 일상 생활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인간의 지식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으며 과학의 연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읍니다. 상업, 산업, 정계, 교육계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이러한 일이 가능해졌읍니다. 세계의 부와 수익의 상당한 부분이 이러한 지식을 추구하는 데 사용되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통해 과학을 알고 이해하려는 데 시간과 노력을 바칩니다.

과학은 현대의 인간에게 일손을 덜어 주고 편안함을 주는 많은 놀라운 이기를 제공해 주며,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생활 수준을 이루어 주었읍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과 사치스러운 것을 부여받은 이상 하나님과 종교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할 수 있겠읍니까? 지식의 진보란 과학적인 증명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또한 그 결과이므로 하나님의 실존도 그러한 증거로 증명될 수 없는 한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사실 과학적인 연구란 진리를 확인하는 데 들이는 노력이며, 이러한 연구를 하는 데 적용되는 원리는 종교의 진리를 탐구해 보고자 하는 데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께서는 감람산에 오른 군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 : 7-8)

이 말씀은 결심을 갖고 찾으며, 진지하게 진리를 탐구하라는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읍니다. 이 원리는 과학에는 물론 종교에도 적용됩니다. 어느 경우나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마

련입니다.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고 거짓된 사실을 버리며 진리를 찾아내는 데만도 평생의 노력이 요구될 수 있읍니다.

과학적인 탐구가 중요한 것과도 같이 하나님에 대한 탐구 즉 그의 실존성과 그의 개인적인 속성을 알아 보거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식을 알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식을 탐구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읍니다. 이들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전혀 힘이 들지 않는 반대의 방향을 택해 그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어느 작가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음악가가 많으나 우리의 대부분은 음악가가 아니며, 음악적인 재능이 결여된 사람이 있으나 대부분은 음악에 취미가 없어 음악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읍니다. 그러나 음악적 재능을 타고난 사람 중에 수년간 끊임없는 노력을 들이지 않고 대가가 된 사람은 없읍니다. 위대한 연주가는 그들의 명성이 국제적으로 떨쳐도 연습하는 데 많은 시간을 바칩니다. 부단한 노력과 끊임없는 연습없이 뛰어난 운동가가 되거나 숙달된 기술자가 되거나 이름있는 학자가 되거나 유명한 웅변가가 되거나 명성을 떨치는 법률가가 될 수 없읍니다. …내가 음악가가 될 재능이 없기 때문에 음악가란 전혀 없고, 내가 발명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에디슨과 같은 발명가가 전혀 없으며, 내가 예술가가 될 소질과 취미가 없기 때문에 예술가란 전혀 없다고 말하고 눈과 귀를 닫아 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읍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없다고 선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무지가 하나님이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조셉 에프 메릴, 진리의 탐구자와 몰몬이즘, 데져렛 출판사, 76-77페이지)

과학적인 진리의 지식을 찾든가 하나님을 발견하든가 간에 우리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출발점이 됩니다. 신앙은 여러 가지 말로 정의가 되어 왔으나 히브리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뜻깊은 말로 그 뜻을 정의하였읍니다. "믿음 〔신앙〕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히 11 : 1) 다른 말로 해서 신앙이란 우리가 바라는 바에 대해 확신을 주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과학자들은 분자나 원자나 전자를 보지 못하나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과학자는 전기나 방사선이나 자기를 보지는 못하나 보이지 않는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나님을 간구하는 사람은 그를 보지는 못하나 신앙으로 그가 실존해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희망 이상의 것입니다. 신앙은 확신을 주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 줍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믿음 〔신앙〕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 11 : 3) 여기서 신앙이란 말은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거나 확신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를 만들어 낼 수는 없으나 신앙이란 이 세상의 기이한 모든 현상이나 모든 자연 속의 현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과학계의 발명이나 발견을 믿는 이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문자 그대로의 부활이나 영계에 관한 기적을 믿는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시는 동안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읍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 7 : 17) 구세주 역시 아버지의 뜻과 큰 계명을 이렇게 설명하셨읍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 22 : 37)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업의 신성함에 대한 개인적인 계시를 받게 됩니다.

지혜를 얻고자 원하는 사람에게 야고보는 그것을 얻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였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 1: 5) 야고보는 과학적인 의미에서 실질적인 지식을 말한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권고를 따를진대 인간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늘에서 계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읍니다.

다음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나 주는 나를 두려워 하는 자에게 자비로우며, 은혜를 베푸나니, 끝까지 의와 진리로 나를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 그는 끝까지 의와 진리로 그를 섬기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읍니

다.

"저희 상은 클 것이요, 저희 영광은 영원하리로다.

"또 저들에게 모든 비밀을 알려 주리니, 곧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장차 미래에 이르기까지 숨겨 온 나의 왕국에 대한 모든 비밀을 알려 주며 나의 왕국에 관계되는 모든 일에 대한 나의 뜻을 알게 하리라.

"참으로 영원히 놀라운 일도 저들이 알게 될 것이요, 장차 있을 일 곧 여러 세대의 일까지도 내가 저들에게 보여 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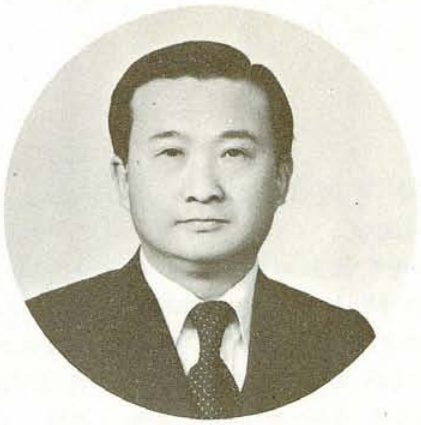
"그리하여 저들의 지혜는 커질 것이요, 이해력은 하늘에까지 미치리니, 저들 앞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지혜가 소멸될 것이요, 분별력이 있는 자의 이해력이 없어지리라.

"이는 나의 영으로써 깨닫게 하며 나의 권능으로써 나의 뜻의 비밀 곧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 본 적도 없는 것들을 저들에게 알려 줄 것임이니라."(교성 76 : 5-10)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공식과 이를 이룰 수 있는 도구인 신앙, 사랑, 기도를 가지고 있읍니다. 과학은 인간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었읍니다. 그러나 과학은 하나님의 실존을 찾는 것과 같은 인간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이루어 줄 수는 없읍니다. 그 일은 쉽지 않으며 매우 힘든 일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저희 상은 클 것이요, 저희 영광은 영원하리로다"(교성 76 : 6)

나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의 영의 자녀입니다. 그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우주를 다스리는 영원한 율법을 제정하셨읍니다. 인간이 연구를 계속함에 따라 이러한 율법이 하나씩 발견되나 이것은 항상 존재해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대속의 희생을 통해 모든 인간에게 영생을 주는 구세주요 구속주라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를 발견하며, 그를 위해 봉사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결심을 갖게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겸손히 간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부활절을 맞이하여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 김 장 선

우리 인생의 가장 슬픈 죽음의 문제는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해결되었고, 인류의 역사는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읍니다.

기독교가 생긴 것도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며, 기독교 신앙의 골수도 부활을 체험하는 데 있읍니다. 「예수가 죽은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산 소망이 있게 하심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기업을 얻게 하신다」고 베드로는 말하였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예수를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의 아침이 있은 후 다시 산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게 되었읍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기 전에는 너무나 비겁하여서, 예수를 세 번씩이나 부인하였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용기 백배하여「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말을 들으라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너희가 회개하라」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만 도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활력을 주며 기쁨과 희망을 주는 종교입니다. 만일 기독교가 도덕에서 그친다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필요가 없읍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모두 변합니다.

사랑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고, 강산도 변하고, 사업도 변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소망을 두어도 변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소망을 두어도 그것 역시 변하여 부모가 먼저 죽고마는 것입니다.

다만 영생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소망의 대상이시며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보다 강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의 활동이 팔레스타인에 국한되었으나 부활하신 후에는 전 인류의 왕으로 세계 역사를 지배하고 계십니다. 즉 세계 역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활동의 흔적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불멸의 신앙입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것이며, 이 사실을 모르는 무리들이 또한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읍니다.

요한복음 11 : 25에「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하리라」고 하신 뜻은 예수의 부활은 악한 자는 멸망하고 의인은 승리한다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르치는것은 절대적인 새로움입니다. 맑은것을 청산하고 전연 새로운 고차원의 출현입니다. 모든 종류의 악순환을 깨뜨리고 전연 새로운 현실을 얻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남북대결의 민족적 악순환을 비롯하여 빈곤과 낭비의 경제적 악순환, 퇴폐와 가치상실의 문화적 악순환, 생존 경쟁과 생명 천시의 도덕적 악순환, 기타 우리의 매일 매일의 현실속에 얽혀있는 모든 악순환을 끊고 우리 민족의 부활의 새 차원을 열어갈 수는 없겠는가 하는 것이 모든 사람 마음속에 숨어있는 깊은 갈망이요 희구인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먼저 이제까지의 자아, 옛자아에 있어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자아를 탄생 시킵니다. 이것만이 새로와지는 부활의 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꺽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식물을 나눠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췰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이사야 58 : 6-8